

碩士學位論文

장 미셸 바스키아
(Jean Michel Basquiat)의
그래피티를 응용한 패션
페인팅



濟州大學校 大學院

衣類學科

高 銀 淑

2005年 12月

장 미셸 바스키아
(Jean Michel Basquiat)의
그래피티를 응용한 패션 페인팅

指導教授 張 愛 蘭

高 銀 淑

이 論文을 理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5年 12月

高銀淑의 理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5年 12月

목 차

| | |
|---------------------------------------|----|
| 국문 초록 | ii |
| 표 목차 | iv |
| 그림목차 | v |
| | |
| I. 서론 | 1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2 |
| | |
| II. 본론 | 5 |
| 1. 장 미셸 바스키아의 작품 형성과정 및 미술사적 배경 | 5 |
| 1) 장 미셸 바스키아의 생애 | 5 |
| 2) 바스키아 작품의 미술사적 배경 | 8 |
| 3) 바스키아 작품의 형성과 발전 | 12 |
| 2. 바스키아의 작품세계 | 17 |
| 1) 바스키아 작품의 특성 | 17 |
| 2) 바스키아 작품의 주제 | 23 |
| 3. 텍스타일 디자인의 패션 페인팅 | 33 |
| 1) 텍스타일 디자인과 패션 페인팅 | 33 |
| 2) 팝아트 패션에 표현된 그래피티 | 37 |
| | |
| III. 작품 제작 및 해석 | 40 |
| 1. 디자인 의도 | 40 |
| 2. 작품 제작 및 해석 | 41 |
| 1) 자전적 경험 | 41 |
| 2) 인종주의 | 47 |
| 3) 만화테마 | 50 |
| 4) 금전적 가치 | 54 |
| 5) 해부학과 죽음 | 58 |
| | |
| IV. 결론 | 66 |
| | |
| 참 고 문 헌 | 68 |
| 작 가 연 보 | 69 |
| ABSTRACT | 70 |

국 문 초 록

미술은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이를 재편성하여 발전적으로 수정함으로써 현대의 새로운 통용어가 되는 바, 현대에 있어 비(非)미술 영역에서 새로운 형식을 창조하고 직접적인 체험을 간접적 문화의 주제로 대치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대중문화를 이용한 미술의 확장을 들 수 있는데, 한 시대의 인간의 삶을 진실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수단인 패션에 미술 사조가 반영되는 것이 바로 그 예이다.

특히, 팝아트는 1950년대 중·후반 등장한 구상 미술의 한 경향으로서, 매스 미디어와 광고 등 대중 문화적 시각 이미지를 미술의 영역 속에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경계를 허물어 예술의 대중화에 기여하였고, 이러한 팝아트의 대중 문화적이고 소비문화적인 특성은 패션에 영향을 미쳐 60년대의 패션을 혁신적이고 전위적인 모드로 발전시켜 팝아트 패션을 출현시켰다. 이러한 팝아트 패션에 주로 사용되는 기법은 실크스크린 판화 기법으로 특별한 사건의 연속된 복제를 통하여 특수하고 쇼킹한 이미지를 일상적이고 둔감한 것으로 바꿔 놓아 팝아트의 특성을 잘 드러내어 현대 패션의 텍스타일 디자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아가 다양한 소재에 직접 페인팅하여 작품을 만들어 내는 패션 페인팅은 텍스타일 디자인의 일종으로 팝아트뿐만 아니라 어떠한 예술사조라도 패션에 담아낼 수 있어 예술의 패션에의 확장에 기여하는 데 일조한다.

또한 미술작품에는 작가 자신의 주관적인 사고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는 자기표현의 욕구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욕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낙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미술의 원천이라 할 것이다. 낙서는 현재까지도 미술계 내외부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1980년대에 신표현주의 및 자유분방했던 미국 내 흑인들의 문화의 영향으로 본격적으로 미술로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낙서작가로서 장 미셸 바스키아(Jean Michel Basquiat)를 들 수

있는데, 바스키아는 미국 미술계에서 신동이자 스타로 받아들여졌으며, 9년이라는 짧은 작업기간 동안 많은 양의 중요하고 독창적인 작품을 남겼다. 바스키아의 작품에는 한 개인의 기본적 문제인 자아 정체성의 추구하고 표현에 대한 의지 및 시대적, 사회적 현상이 표현되고 있으며, 미국 미술계에서의 그의 성공에는 당시 미국문화와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복잡성, 그리고 특수한 미술시장성이 반영되어 있다.

바스키아는 미국 내에서 소외되고 어두운 그림자 속에 있는 흑인으로, 이러한 그의 인종적인 면은 그의 작업에 항상 내재되어 있었고, 작업의 중요한 테마였다. 그러나 바스키아 자신은 빈민가의 흑인이 아닌 부유한 회계사의 아들이었으며, 그 자신이 고의적으로 흑인 빈민가의 소년이기를 자청하여, 기존의 회화 개념을 비웃듯이 자유스러운 낙서를 그림에 이용하면서 표현적 언어로 작업을 진행하였고, 여기에는 흑인적인 특성이 그대로 나타났으며 낙서의 주제 또한 인종주의적 상징들로 이루어졌다.

또한 그의 작품세계에서 주로 나타나는 표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유희적이고 소박한 형상들과 의도적으로 틀린 철자나 문장들, 때로는 해골, 내장, 뼈, 치아 등 죽음의 상징들이며, 작품에 나타난 문장들은 주로 현대사회의 소비문화와 그 속에서 인간의 상황을 비판하고 있는 풍자적인 내용들이다. 이를 그 자신만의 독특한 조형방법, 즉 강렬한 원색을 사용하면서도 형상을 극대화시켜 낙서하듯 직감적, 충동적, 직선적인 표현터치를 함으로써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장 미셸 바스키아의 작품세계를 패션 페인팅 작품에 나타냄으로써 예술사조와 패션을 병치시키는 작업에 관한 것으로, 바스키아의 개인적, 역사적 상황 및 작품 형성과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그의 작품을 고찰해 봄으로써 작품의 주제와 조형 방법을 유추하여 이를 응용한 패션 페인팅 작품을 제시함으로써 바스키아의 작품 세계를 패션에 담아내고자 하였다.

표 목 차

| | |
|---------------------------------|----|
| <표 1> 연구모형 | 4 |
| <표 2> 바스키아 작품의 주제별 상징적 기호 | 20 |
| <표 3> 바스키아 작품의 주제 | 32 |



그림 목 차

| | |
|--|----|
| <그림 1> Jean Michel Basquiat, Keith Haring, http://jmbasquiat.new21.org | 11 |
| <그림 2> Samo graffiti, film still from 'New York Beat', 1980 http://jmbasquiat.new21.org | 11 |
| <그림 3> 뉴욕 뉴웨이브 전시회, 1981, Jean Michel Basquiat http://jmbasquiat.new21.org | 14 |
| <그림 4> Untitled(Black Tar and Feathers), 1982 Jean Michel Basquiat http://jmbasquiat.new21.org | 14 |
| <그림 5> Untitled(detial) 1982 Jean Michel Basquiat http://jmbasquiat.new21.org | 15 |
| <그림 6> Untitled(Skull), 1982 Jean Michel Basquiat http://jmbasquiat.new21.org | 15 |
| <그림 7> Jean-Michel Basquiat, Francesco Clements, Andy Warhol, Jean Michel Basquiat, http://jmbasquiat.new21.org | 15 |
| <그림 8> Clindrone, 1984, Jean-Michel Basquiat, Francesco Clements, Andy Warhol Basquiat, Charta, 1999, p155 | 15 |
| <그림 9> Ailing Ali In Flight For, Life, 1985, Jean-Michel Basquiat, Andy Warhol, Basquiat, Charta, 1999, p169 | 16 |
| <그림 10> Untitled (Mary Boone), 1984-1985, Jean Michel Basquiat, http://jmbasquiat.new21.org | 16 |
| <그림 11> Brown spots, (portrait Andy Warhol as a banana), 1984, Jean Michel Basquiat, Basquiat, Charta, 1999, p95 | 16 |
| <그림 12> Untitled, 1988, Jean Michel Basquiat, http://jmbasquiat.new21.org | 16 |
| <그림 13> Untitled(Postcard), 1979, Jean Michel Basquiat, http://jmbasquiat.new21.org | 18 |
| <그림 14> Untitled(Postcard), 1979, Jean Michel Basquiat, http://jmbasquiat.new21.org | 18 |
| <그림 15> Max Roach, 1984, Jean Michel Basquiat, Basquiat, Charta, 1999, p91 --- | 18 |
| <그림 16> Loans, 1981, Jean Michel Basquiat, Basquiat, Charta, 1999, p21 | 18 |
| <그림 17> Untitled, 1981, Jean Michel Basquiat, http://jmbasquiat.new21.org | 19 |
| <그림 18> Untitled(1960), 1983, Jean Michel Basquiat, http://jmbasquiat.new21.org | 19 |
| <그림 19> Subjects", 1983, Jean Michel Basquiat, http://jmbasquiat.new21.org | 19 |

| | |
|---|----|
| <그림 20> “Florence”, 1983, Jean Michel Basquiat, http://jmbasquiat.new21.org | 19 |
| <그림 21> 호보기호편, Jean Michel Basquiat, Jean Michel Basquiat 의 繪畫世界 研究, 윤현덕, 1999, p.33 | 22 |
| <그림 22> Victor 25448”(detail), 1987, Jean Michel Basquiat, http://jmbasquiat.new21.org | 22 |
| <그림 23> Untitled(Red Man), 1981, Jean Michel Basquiat, http://jmbasquiat.new21.org | 25 |
| <그림 24> Untitled(detail), 1981, Jean Michel Basquiat, http://jmbasquiat.new21.org | 25 |
| <그림 25> Acque Pericolose-Poison Oasis, 1981, Jean Michel Basquiat, http://jmbasquiat.new21.org | 25 |
| <그림 26> Untitled(Aaron), 1981, Jean Michel Basquiat, http://jmbasquiat.new21.org | 25 |
| <그림 27> “CPRKR”, 1982, Jean Michel Basquiat, http://jmbasquiat.new21.org | 27 |
| <그림 28> Untitled (Maid from Olympia) (detail), 1982, Jean Michel Basquiat, http://jmbasquiat.new21.org | 27 |
| <그림 29> Untitled(Plaid) (detail), 1983, Jean Michel Basquiat, http://jmbasquiat.new21.org | 27 |
| <그림 30> A Panel of Experts”, 1982, Jean Michel Basquiat, http://jmbasquiat.new21.org | 27 |
| <그림 31> Piano Lesson (for Chiara), 1983, Jean Michel Basquiat, http://jmbasquiat.new21.org | 28 |
| <그림 32> Napoleonic Stereotype Circa '44, 1983, Jean Michel Basquiat, Basquiat, Charta, 1999, p79 | 28 |
| <그림 33> “Life Like Son of Barney Hill”(detail), 1983, Jean Michel Basquiat, http://jmbasquiat.new21.org | 28 |
| <그림 34> Untitled(collaboration with Andy Warhol) (detail), 1984, Jean Michel Basquiat, http://jmbasquiat.new21.org | 28 |
| <그림 35> Untitled(detail), 1986, Jean Michel Basquiat, http://jmbasquiat.new21.org | 29 |
| <그림 36> Portrait of The Artist asa Young Derelict(detail), 1982, Jean Michel Basquiat, http://jmbasquiat.new21.org | 29 |

| | |
|--|----|
| <그림 37> 팝아트 드레스, 이브 생 로랑, 65-66년 S/S 컬렉션 | 39 |
| <그림 38> 몬드리안 드레스, 이브 생 로랑, 1965 | 39 |
| <그림 39> 메시지 티셔츠 | 39 |
| <그림 40> 2003 F/W 컬렉션 | 39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프랑스 미술사학자 피에르 프랑카스텔(Pierre Francastel)이 “미술은 한 시대나 사회에 하나의 독자적인 세계를 형성한다”고 말한 것처럼 미술가의 새로운 삶의 길을 개척하는 미술활동이 함축된 지적인 노력은 한 사회나 한 시대의 생활상 그 자체라 할 수 있다.¹⁾ 이와 같이 미술은 사회의 범주 안에서 독특한 양식으로 형성되며, 문화 전반에 있어서 패션을 비롯한 각 분야 간에 밀접한 상호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예로 현대패션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는 그래피티 표현기법이 바로 낙서 미술에서 차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낙서미술은 80년대의 신표현주의와 자유분방했던 미국 내 흑인들의 문화에서 시작되었으며 시작부터 현재까지 미술계 내외부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 낙서화는 좁게는 낙서(Graffiti)라고 지칭되지만 넓게는 문화파괴행위(Vandalism)라고 일컬어진다.²⁾

80년대 주목받았던 대표적인 낙서 화가인 장 미셸 바스키아는 백인이 아닌 흑인이라는 인종적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 그 이유 때문에 바스키아는 인종차별이라는 사회적, 문화적 이슈는 물론 미국의 80년대의 가정에서 많은 이혼, 소년들의 가출, 마약, 그리고 죽음 등에 대한 내용을 낙서라는 매개를 통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고, 자신만의 상징적 언어로서 그와 같은 메시지들을 표현하였다. 결국 바스키아는 독특하고 강렬한 표현 방식과 예리한 내용의 서술성을 갖는 작품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작품 속에 다양한 문화와 여러 인종에 대한 백인들의 우월주의는 물론, 편견 속에서 유색인종으로서 그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과 소수 편견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노력을 담을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래피티를 현대 패션에 접목시키기 위해, 바스키아의 작품세계를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래피티로 표현된 그의 작품의 주제

1) 루시 스미드, 김춘일(역), ‘현대미술의 흐름: 1945년 이후’, 미진사, 1992.

2) 이태호, ‘장내미술과 장외미술’, 월간미술, 1989. 4. p.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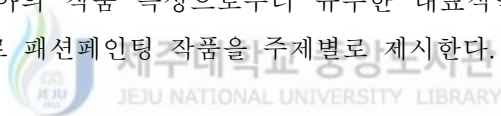
및 조형방법 등을 응용하여 텍스타일 디자인의 일종인 패션 페인팅 실제 작품을 제시하고자 한다. 패션 페인팅은 재활용 측면과 예술적 측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학문적인 이론 체계가 정립이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현대 패션 중 특히 팝아트 패션으로 표현되고 있는 패션 페인팅의 개념정립뿐만 아니라 패션 디자인에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을 제시해 줌으로써 미래 패션의 발전을 위한 한 방향을 주도할 수 있는 의미있는 연구라 사려된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기로 한다.

첫째, 문헌 및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바스키아의 작품 활동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작가의 배경 및 미술사적인 배경을 고찰한 후 작품 특성을 분석하여 바스키아의 대표적인 주제 및 조형방법 등을 유추한다.

둘째, 텍스타일 디자인의 일종인 패션 페인팅의 개념을 정립하고, 패션 페인팅 기법을 분석한 후, 현대 패션 중 팝아트 패션에 표현되고 있는 패션 페인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셋째, 바스키아의 작품 특성으로부터 유추한 대표적인 주제와 조형방법을 응용하여 실제로 패션페인팅 작품을 주제별로 제시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동시대 또는 이전 세대의 화가로서 바스키아의 작품 활동에 영향을 준 잭슨 폴록(Jackson Pollock), 라우센버그(Rauschenberg), 키스 헤링(Keith Haring), 프란체스코 클레멘테(Francesco Clemente), 앤디 워홀(Andy Warhol)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바스키아의 작품 주제 및 조형방법을 고찰 한 후, 낙서화를 패션에 접목시키는 방법으로서 패션 페인팅을 활용한 작품을 통하여 새로운 현대 패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의 진행방법은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로 나누어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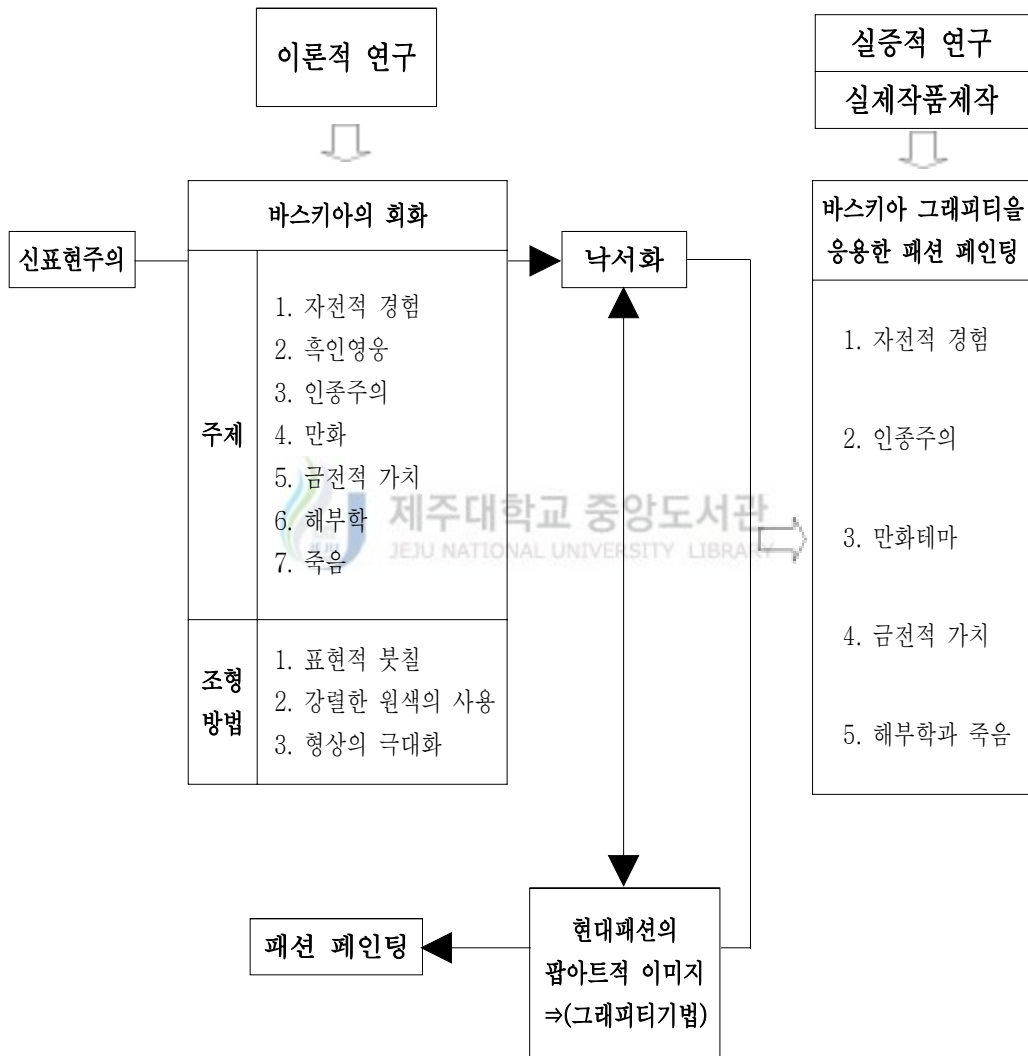
먼저, 이론적 연구로 문헌 및 선행 연구를 통하여 바스키아 작품을 분석하여 바스키아의 작품의 주제 및 조형방법을 유추한다. 작품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서는 화보와 바스키아 작품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http://jmbasquiat.new21.org>), 그리고 바스키아의 작품집을 주로 참조한다. 또한 실제작품 제작에 앞서 패션 페인팅의 개념 및 기법을 정립하고, 현대 패션 중 특히 팝아트 패션에 표현되고

있는 패션 페인팅에 대해 살펴본다.

이론적 연구에서 유추한 결과를 중심으로 실제 제작을 통한 실증적 연구를 한다. 즉 바스키아 작품특성에서 분석한 대표적인 주제 및 회화 기법을 응용하여 주제별로 패션 페인팅 작품을 제작한다. 패션 페인팅 작품 제작에 사용된 안료는 이지 플로 직물용 페인트, 칼라 라이트 페인트, 베베오 페인트를 주로 사용되었고, 작품 소재로는 팝아트의 대중적 문화코드를 대변하는 티셔츠(Tee Shirt)와 진(Jean)을 선택하였다.



<표 1> 연구 모형



II. 본론

1. 장 미셸 바스키아의 작품 형성과정 및 미술사적 배경

1) 장 미셸 바스키아(Jean Michel Basquiat, 1960~1988)의 생애

바스키아는 푸에르토리코 태생인 어머니(Matilde Andradas)와 하이티 섬의 태생인 아버지(Gerard Basquiat Andradas) 사이에서 1960년 뉴욕 브룩클린에서 태어났다. 브룩클린은 뉴욕의 빈민지역으로 흑인과 소수민족이 주민의 대부분으로 구성된 곳으로서 뉴욕시민에게는 범죄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바스키아는 출생지와는 다르게 비교적 중산층으로, 아버지는 회계사로 미국 내에서 비교적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머니 또한 패션디자인에 관심이 있고 소묘에 재능이 있었던 자상한 분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바스키아의 집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브룩클린 미술관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바스키아를 미술관에 데리고 다녔고, 어린이 회원으로 등록시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³⁾ 더욱이 브룩클린 미술관은 뉴욕의 빈민가와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 바스키아를 예술가로 만드는데 분명히 일조했으리라 여겨진다.

바스키아는 8살 때 교통사고로 인해 팔에 골조상을 입었고 내장을 다쳐 비장을 제거하게 되었다. 이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어머니는 「그레이의 해부학(Gray's Anatomy)」 책을 선물로 주었다. 이 책은 바스키아에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어 해부학에 대한 관심을 평생 지니게 되었는데, 그 예로 1979년 바스키아가 조직한 밴드의 이름을 그레이라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바스키아의 드로잉과 회화작품에 자주 등장한 내장들, 팔, 손, 뼈와 같은 해부학적 소재들은 그의 예술 친구였던 브라이언 고펠리(Brian Gormley)가 모아준 책들과 폴 리차드(Paul Richard)의 미술 해부학 책으로부터 인용한 것들이었다.⁴⁾

1974년 부모가 이혼함에 따라 학교를 여러 번 옮겨 다녔고, 얼마간은 푸에르토리코에 가서 살게 되는데, 이는 그가 약간의 남미 언어와 마야문명에 접

3) Richard D. Marshall, 'Jean-Michel Basquiat' Whitney/Abrams, N.Y, 1993, p.233

4) Storr Robert, 'Basquiat Drawing', Robert Miller Gallery, N.Y, 1990, p.35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바스키아는 10대 중반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집을 떠나 맨하탄의 중심부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과거와 현대의 미술가들의 작품을 참고로 소묘 연습을 통해 고전적인 방법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터득하였다. 그래서 개인화된 시각 어휘들, 화살, 왕관과 해골, 내장 등 해부학에서부터 거리의 속어에서 얻은 목록에 이르기까지 모더니즘의 순수와 규모로부터 습득한 보다 큰 원칙들로 모든 것을 통합하기 시작하였다.

바스키아가 본격적으로 미술계(화랑)에서 받아들여지기 전에 이미 뉴욕 낙서화가들 사이에서는 왕과 같은 스타였으며 뉴욕시민에게는 SAMO⁵⁾라는 고유한 사인으로 유명하였다.

바스키아는 동시대 낙서 작가인 키스 헤링⁶⁾ <그림 1> 과는 외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키스 헤링은 게토지역 출신도 아닌 백인이고, 정식 미술학교의 과정을 마친 신분이었던 반면, 바스키아는 17세에 학교를 중퇴한 미술계 밖의 거리에서 들어온 철저한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말 미국 미술계의 바스키아의 등장은 미국 미술의 두 번째 혁신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 첫 번째는 바바라 크루거(Barbara Kruger), 제니 홀처(Jenny Holzer), 신디 셔먼(Cindy Sherman), 주디 시카고(Judy Chicago)와 같은 여성 작가들이 본격적으로 미술계에 받아들여진 점이며, 두 번째는 바스키아와 같은 소수민족⁷⁾이 미국 화단에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진 점이다.⁸⁾

바스키아의 예술과 삶은 찰리 파커(Charlie Parker), 디지 질레스피(Dizzy Gillespie), 빌리 할리데이(Billie Holiday), 윌리엄 버로우스(William Burroughs), 잭 케루악(Jack Kerouac)과 잭슨 폴록 그리고 재즈와 같은 비트

5) 1977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S.A.M.O(Same Old Shit)는 가짜 전도사와 건달을 지칭하는 속어인데 바스키아는 스프레이 페인트로 재치있는 철학적 식기와 같은 낙서를 했다. SAMO는 '세뇌하는 종교, 갈데없는 정치, 엉터리 철학을 끝장 내준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6) 키스 헤링(Keith Harring)은 낙서화가들 중에 시각예술학교를 졸업한 소수의 백인이다. 미술 사적 맥락에서 비교적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작업을 했으며 사회에 관심과 정열로서 적극 참여하면서 미술주류 화가들과 언더 그라운드 낙서화가들간의 간격을 좁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7) 소수민족에 관한 예로 영국에서 출간된 에드워드 루시 스미스(Edward Lucie-Smith)의 아트 투 데이(Art to day)에서는 바스키아를 소수 인종 미술(Racial Minorities)로 분류해서 기술하고 있다.

8) Klaus Honnef, 'Contemporary Art', Taschen, 1998.

세대에 의해 보다 큰 영향을 받았다.⁹⁾ 이들 중 바스키아에게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람은 똑같은 것을 다시 연주한 적이 없었던 흑인 색소폰 재즈 연주가 찰리 파커였다.

재즈, 비밥(Bebop)¹⁰⁾ 음악과 파커의 인생은 바스키아처럼 젊은 흑인세대 뿐 아니라 냉전에 의해 도입된 억압적 규범에 반항한 낭만적으로 고립된 백인들조차도 선호한 음악이 되었고, 인생 스타일의 모델이 되었다. 또한 파커와 비밥 음악은 바스키아가 존경하는 소설작가인 윌리엄 버로우스와 잭 케루악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버로우스의 소설 중 「정키(Junky 1953)」는 바스키아가 가장 좋아하는 책으로, 이 작가의 언어에 대한 과격한 사용, 극단성, 단어들에 대한 탐욕,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반항심, 그리고 자신과 주위를 위한 언어의 재발명과 사용은 바스키아가 작품에 단어들을 붓자국처럼 즐겨 쓰도록 하는 영향을 미쳤다.

바스키아는 짧은 생애에 비해 88년까지 미국과 해외에서 약 60회의 개인전과 많은 그룹전시를 가졌다. 그중 화가로서 주목받게 된 80년의 ‘타임즈 스퀘어 쇼(Times Square Show)’¹¹⁾와 81년 ‘뉴욕/뉴 웨이브(New York/New Wave) 전’¹²⁾에서는 바스키아뿐 아니라 키스 헤링, 케니 샤프(Kenny Scharf) 등이 함께 전시했고, 82년에는 서독 카셀의 ‘다큐멘타 7(Documenta 7)’에 미국의 신표현주의 기수들과 함께 참가했다.

바스키아 예술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향은 82년부터 87년까지 교류했던 앤디 워홀일 것이다. 바스키아가 출생했던 1960년에 팝아트를 처음 시작했던 앤디 워홀은 종전에 주변상황으로만 알려졌던 인기와 상품을 자신의 예술의 실재적 소재나 목적으로 만들었다. 워홀은 최초의 성공적인 상업 작가로서 예술품의

9) Klaus Kertess, 'Brushes with Beatitude', Whitney/Abrams, N.Y., 1994, p.54

10) 비밥(BeBop)-모던재즈의 모체가 된 연주 스타일로 1930년대 후반 들어 절정에 이른 재즈나 전통적인 디실랜드 스타일에 만족을 느끼지 못한 젊은 혁신적인 음악가들이 그 때까지의 형식을 타파하고 새로 개척한 스타일이다. 이 스타일은 1943년경 뉴욕시의 흑인가에 있는 재즈클럽 민턴스 플레이하우스에서 흑인 재즈 연주자 D. 질레스피, C. 파커, C. 크리스천, T. 멩크 등이 모여 연주하던 잼 세션(jem session)에서 생겨난 새로운 스타일의 재즈로서, 다채로운 변화의 리듬과 복잡한 멜로디와 화성의 전개를 그 특징으로 한다.

11) 처음으로 이 전시회에서 바스키아는 정식 화가로서 작품을 출품하였다. 이 그룹전에는 케니 홀처, 톰 오터너스, 케니 샤프, 키키 스미스 등과 함께 전시하였다. 이때, 바스키아의 대형작품인 SAMO 그림이 Art in America에 실렸다.

12) 뉴욕/뉴 웨이브 전에는 케니 샤프, 키스 헤링, 로버트 메이폴도프, 앤디 워홀 등과 낙서화가 알리, 크래쉬, 페브 등이 함께 참가함.

다수성, 즉 그가 작업한 사진을 이용한 많은 실크스크린이 모두 오리지날이라는 개념을 강조하여 미술과 경제를 통합시켰으며 철저하고 정확한 예술가였다. 반면에 바스키아는 직감적이고 충동적이었으나, 창조적인 천재성을 지니고 있었다. 결국 워홀은 그의 후원자가 되었고, 그들은 함께 작업하며 팝아트의 이미지와 미국 이민자들이 꿈꾸는 아메리칸 드림을 구현시켰다.¹³⁾ 워홀과 바스키아는 서로의 상반되는 솔직함으로 대처해 나갔으며, 84년에서 85년까지 바스키아 후기 작품 대부분이 워홀 측이 소유하고 있으며 미공개 된 60여개의 합작품을 남겼다.¹⁴⁾

이상과 같이 바스키아는 자유롭고 야성적인 기질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작품 활동을 하였고, 이는 배타적이며 새로운 것을 찾는 미국인들로 하여금 흑인 소년 바스키아를 미국 미술계에 받아들여지게 함과 동시에¹⁵⁾ 결국 그를 무절제하고 격렬한 삶을 살게 하였다. 결국 강박관념과 마약남용으로 1988년 8월 12일에 27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여 브룩클린의 그린울(Greenwool) 묘지에 안장되었다.

2) 바스키아 작품의 미술사적 배경

바스키아가 작품활동을 하였던 1980년의 미술사적 배경으로 신표현주의와 젊은 작가들 사이에서 정식 미술로 받아들여지게 된 낙서화에 관해 살펴 보기로 한다.

(1) 신표현주의

1980년대는 사회, 정치적으로 주변 문화에 관심이 고조된 시기였다. 세계 미술을 예로 들어보면, 7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다원주의¹⁶⁾와 함께 80년대의 신표현주의가 당시의 변모를 대변하며, 이들은 표현적 붓칠이나 강렬한 원색의 부활, 형상의 극대화 등을 가져옴으로써 격렬한 회화라 명명되기도 한다.

13) 박규형, '워홀과 바스키아의 세계', 공간, 1991. 11

14) Levin Kim, 'Andy Warhol & Jean-Michel Basquiat', Exhibition Catalogue, Sonje Museum, 1991, p.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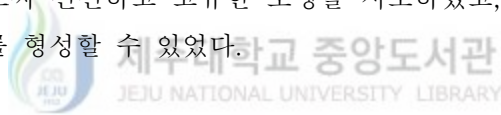
15) 홍대일, '장 미셸 바스카아의 들연한 죽음', 월간미술, 1989, 4, p.141.

16) 다원주의(Pluralism)는 총괄적인 모더니즘을 근거로 상정했을 경우 70년대 이후의 현대미술을 지칭하는 것으로 모든 현행예술 추세를 포함하여 동시에 그것을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특히, 1980년대 미국 미술은 모더니즘 말기의 미니멀리즘이 각광을 받음과 동시에 정반대로 최대한의 내용과 형식으로 극대화된 미술적 표현들이 주목받았고, 이러한 작품들에는 후기 자본주의 시대에서 초래된 개인 소외, 고독, 인간성 상실 등의 제 문제를 다루었다.¹⁷⁾

이 시기에 자신의 주변 세계를 표현하고자 가장 많이 활용한 형식은 차용이었다. 즉, 표현을 위하여 역사적 사건, 기존의 책자, 저속한 연애소설, TV의 내용, 만화 등 비속한 주변에서 소재를 모방하고 직접 빌려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80년대 신표현주의자들은 이미지들을 미리 예정한 몇몇 자료에서 가져와 작가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재조직화’ 하는 방식으로 그 이전의 형상성과는 다른 차원을 갖게 될 새로운 형식을 만들었다.¹⁸⁾

또한 신표현주의 작가들은 매체 자체가 갖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집착과 재관계가 분리된 모든 방식의 시각 자료를 중첩·병치·연속시킴으로써 감각적으로는 뚜렷할 지라도 대부분 모호하게 지각되는 형상들로써 작업하거나, 혹은 이미지들의 독자적 묘사 자체만으로는 불가능한 깊은 의미가 내포된 형태들을 조합함으로써 신선하고 고유한 조형을 시도하였고, 그럼으로써 생기있는 표현성의 세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2) 낙서화

낙서라는 행위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과 연결되어 있다. 그 기원은 인디언들의 암벽화나 로마 카타콤(Catacomb)의 벽에 새겨진 암호문자들, 이집트 무덤 벽면의 글자들에서 유래되었다. 그 후 현대 서구문명 사회에 등장한 낙서는 기계문명에 대한 현대인의 저항심리나 소외된 계층의 자기표현 욕구를 반영하는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각각 조명되고 있다.

17) 이태호, ‘80년대 미술의 확산과 반작용’, 월간미술, 1989. 12., p. 47

18) “새로운 미술의 경향 중에 특히 주목되는 특징은 각 영역 간 수렴현상이다” 회화와 조각이 통합되고 여기에 조각뿐 아니라 건축 또한 총체적으로 접근 되고 있으며 또 추상에 형상이 부활, 공존함으로써 그림 자체의 형식적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경향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는 대체적으로 형상성의 부활이라고도 불리어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상성의 부활은 구상적 요소가 우선시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보다는 구상과 추상이 동일한 정도에서 인정되거나 이러한 구분을 초월하여 화면에 자유롭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 양자가 한 화면에 공존함으로써 회화는 자율적이고 폐쇄적인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의 외적세계 즉 사회와 문화 전반에 대한 메시지를 반영하는데 큰 작용을 이루고자 한다. 그것은 또한 극단적인 메시지의 전달이라는 예술의 한 중요한 기능을 부활시키는 것이기도 했다.

낙서는 아무도 모르게 재빨리 그려야 하므로 낙서 특유의 조형양식이 형성되고 의외로 좋은 작품이 나오기도 한다. 또한 재빠른 터치로 그려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까다로운 논리원칙을 거치지 않고 순수한 감성이 바로 거침없이 표현되는 특징이 있어, 낙서는 거칠지만 풋풋한 매력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낙서의 기본적인 심리는 자기 자신을 내보이려는 욕망으로, ‘벽’으로 상징되는 막힌 사회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고 있는 메시지라 할 수 있어 낙서를 행하는 사람의 사회적인 처지와도 관련된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억눌린 계층들이 있는 지역에 낙서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라 할 수 있으며, 심리학자들은 낙서를 억눌린 자들의 심리적 갈등이 표현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현대의 낙서화라 할 수 있는 것은 1971년에 등장한 “Taki 183”이다. ‘Taki’란 한 젊은이의 그리스식 이름의 애칭이며 ‘183’은 그가 거주하는 집주소였다. 그 당시 지하철 내부 벽면에 “Taki 183”이라는 낙서가 여기저기 수없이 그려있자 시민들은 그 낙서에 익숙해졌고, 그것이 화제가 되어 뉴욕 타임즈가 주인공을 추적해 신문에 신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낙서화에 나타난 디자인은 점점 훌륭해졌고, 각각의 낙서그룹의 영웅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화가와 미술평론가들이 낙서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975년에는 거리의 낙서화들을 모은 최초의 전시회가 아티스트 스페이스에서 개최되었고, 마침내 81년 디에고 코르테즈(Diego Cortez)가 조직한 P.S.I¹⁹⁾의 “뉴욕/뉴 웨이브” 전시회를 계기로 낙서가 예술로서 확고한 위치를 갖게 되었으며,²⁰⁾ 1983년 뉴욕의 시드니 제니스(Sidney Janis) 갤러리에서 열린 “후기 낙서화” 전시회를 계기로 낙서화가들은 고급 미술의 수준과 비슷하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였다.²¹⁾ 즉,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혹은 야밤에 철망을 뚫고 들어가 정지해 있는 전철의 벽면에 재빨리 그리고 도망가던 작가들²²⁾이 비로소 정식으로 화랑이나 미술관에서 초대 전시회를 갖게 된 것이다.²³⁾

19) 롱 아일랜드 시티. 예술 및 도시자원 연구소(Institute For Art and Urban Resources)로 옛 학교 건물을 개조한 공간이다. 예술가들에게 무상으로 작업실을 대여해주고, 전시를 하게 해주었는데 1970년대 미국 미술의 중요한 산실로 평가받는다.

20) Richard D. Mardhall, 'Jean-Michel Basquiat', Whitney/Abrams N.Y., 1994, p.238.

21) H. H. 애너슨, ‘현대 미술의 역사’, 1991., p.718.

22) 이들 그룹은 낙서화가들을 라이터 Writer라 부르며 그중에서 자기 스타일을 확보한 대가들을 버너 Burner라 특별히 칭한다

바스키아의 낙서에 관한 관심은 뉴욕의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그렸던 낙서그림 <그림 2> 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스스로를 진정한 낙서화가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 예로, 자신의 SAMO작품을 낙서미술이라기 보다는 대중적 시 또는 개념 미술의 형태로 인식한 것에서 알 수 있다.²⁴⁾ 대체적으로 1980~1981년도의 많은 바스키아 작품들은 거칠며 낙서화되고 지나치게 물감으로 범벅된 도시 벽을 재현된 것이었다. 즉, 깊이감이나 이야기, 상대적 크기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2차원적 화면은 광적이고 추상적이며 전면적인 구성을 보여주었고, 하나의 큰 캔버스는 신속하고 산만한 이미지들로 채워진 검정색의 넓은 면들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또한 바스키아는 전시 오프닝 전날 밤에 소호의 갤러리 벽면에 작품을 그렸다. 이러한 행위는 낙서화의 아웃사이드 작품을 모든 사람이 보도록 함으로써 미국 도시에 고취된 사실상의 인종차별에 대한 도전이라 할 것이다.²⁵⁾



<그림1> 바스키아, 키스 헤링



<그림2> 뉴욕 담벼락의 낙서화

23) 이태호, '장내 미술과 장외 미술', 월간미술, 1989. 4., p.76

24) 바스키아의 낙서에 대한 정의는 지하철에 스프레이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훨씬 폭 넓었다. 그것은 기존의 이미지들, 미술의 형식적 정의 이외의 것 그리고 어린이, 불량자, 원시인, 원주민이 만든 작품 등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25) 니콜라스 마르조예프, '비디스케이프', 이윤희, 이필 역, 시각과 언어, 1999, p253-254

3) 바스키아 작품의 형성과 발전

바스키아의 짧은 생애의 활발했던 9년의 작품 활동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시기인 1980년부터 1982년 사이에는 해골이나 마스크 등을 이용하여 도덕적인 관념을 표현하였으며 자동차, 빌딩, 경찰, 게임, 벽화 등으로 자신의 거리의 삶을 나타내었다. 두 번째 시기인 1982년부터 1985년까지는 여러 판넬에 그림을 그렸으며, 흑인이면서 남미의 스페인계로서의 정체성을 각각의 캔버스에 글과 콜라주, 연결되지 않은 그림 등으로 표현하였다. 마지막 시기인 1986년부터 1988년 사망 직전까지는 다른 상징물들, 다른 출처, 다른 내용, 새로운 회화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묘사적인 표현을 하였다.

바스키아는 1979년 비평가이며 예술가인 코르테즈를 클럽을 통해 만나게 되었고, 코르테즈는 1981년 바스키아를 ‘뉴욕/뉴웨이브 전시회’에 참가하도록 추천하였다. 그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들은 아주 간결하면서도 어린애와 같은 표현들로서 크레용과 페인트로 언프라이머드 캔버스(unprimed canvas)²⁶⁾에 작업한 것으로 바스키아의 가려진 욕망, 열정 등을 어느 정도 표출하고 있다. <그림 3> 뿐만 아니라 이 전시회를 통해 바스키아는 소호(SOHO)²⁷⁾의 딜러인 아니나 노제이(Annina Nosei)를 만나게 되어 화랑 예술가가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 후 노제이의 작업실로 옮겨 그림에 몰두하였으며 더욱 유명세를 얻게 되었고 더욱 더 많은 그림들이 제작되고 팔리게 되었다. 바스키아가 노제이와 함께 일하면서 처음 가졌던 전시는 1981년 그룹 전시회이다. 이 때의 작품들은 ‘뉴욕/뉴웨이브 전시회’보다 나왔고 근본적으로 더 컬러풀해졌으며, 주제는 전형적인 것들이었지만 더 다양했고 풍부한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 해인 1982년에는 “타르와 깃털(Tar and Feathers)” <그림 4> 을 만들었다. 이 작품은 검은 물감을 문쳐서 타르를 흉내내었고 새털 베개를 찢어 그것에 검은 물감을 칠하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1982년 첫 번째 개인전은 대단히 성공적이어서, 회화와 드로잉에 대한 평은 호의적이었고 시적이며 성적인 리듬에 대해 호평을 받았다.

바스키아와 노제이의 관계가 시간이 갈수록 서로에게 불만이 쌓여감에 따

26) Unprimed Canvas - 초벽을 칠하지 않은 캔버스

27) 소호(soho) - 1968년 파올라쿠파가 처음으로 화랑을 개관함을 계기로 미술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소호는 오늘날 백여 개의 갤러리, 시각미술센터 및 전문화된 미술관련 상품점들이 들어섬으로써 미술은 물론 음악, 문학, 연극이 공존하는 “현대예술의 중심지”이다.

라, 1982년 여름 바스키아는 노제이의 화랑을 떠나게 되었고, 그 후 스스로 작업하고 스스로 작품 판매를 하는 등 자유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한 생활은 그의 작품 활동에 자유성을 더욱 더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해 말 동부에 있는 펀(Fun) 갤러리에서 그린 작품들- 원초적인 것들 즉, 인디언 또는 아프리카인을 캔버스에 그린 작품들 -로 개인전을 갖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호평을 받았다. 즉 바스키아는 자기만의 틀을 작품에 표출시킴으로써, 노제이와 함께 일했던 때보다 더 거칠고 대담해졌으며 또한 컬러풀하고 밀도감이 더 느껴지는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1983년 바스키아는 갈구하던 것을 이루어 예술적인 면, 경제적인 면까지 성공하였고 확실한 안정기에 들어서게 되었고, 또한 바스키아를 비롯한 젊은 예술가들에게 1970년대 말과 80년대 초에 전설의 인물로 알려진 앤디 워홀을 페이지 포웰²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 그 후 워홀이 바스키아의 후원자가 되면서 서로 다른 환경과, 인종, 세대, 성품을 지닌 두 작가는 상호 공존의 관계를 이루기 시작하였고 바스키아는 작품 활동에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이 두 작가는 해골, 뼈 등 죽음의 증거들과 같은 모든 죽음의 이미지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워홀은 자동차 충돌, 자살극, 대사고, 쇠퇴한 명사들 그리고 전기의자 등을 비판적인 죽음의 상징 또는 공포의 대상으로 표현하였고, 20대 초반의 젊은 작가 바스키아는 난무한 해골, 내장, 턱뼈, 치아 등으로 죽음을 환상적인 핑크빛 혹은 회극적으로 표현하여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를 1982년 작 “무제(Untitled)”에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림 5, 그림 6>

바스키아는 개인적으로 페인팅 작업을 하는 동시에 공동작업도 하였다. 처음에는 클레멘테, 워홀과 함께 작업하였고, <그림 7, 그림 8> 그 후에는 워홀과만 작업하였다. 바스키아는 워홀이 회사 로고, 뉴욕 포스트 신문의 헤드라인 기사들을 해놓으면 그 위에 실루엣과 이미지를 덧붙여 작품을 완성하였다. 워홀에게 있어서도 1962년 이후에 캔버스에 붓작업을 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었으나 그러한 작품들은 비평가들에게 쓰레기 취급을 받았고, 바스키아 역시 워홀의 마스코트로 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²⁹⁾ <그림 9> 1984년 봄, 매리 분(Mary Boone) 화랑에서 열린 전시회에서는 좋은 평을 듣지 못하였으며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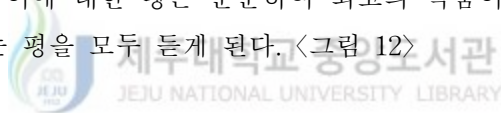
28) 포웰은 오리건주 포틀랜드 출신으로 워홀의 잡지 “인터뷰”의 딜러였다. 포웰을 통해 바스키아가 워홀을 만나게 된 후 포웰은 워홀과 바스키아의 친구가 되었고 자신의 맨해튼 소재 아파트에서 바스키아의 전시회를 열어준 후 바스키아와 아주 가까워졌다.

29) Decker Andrew, ‘The Price of Fame’, Art news, January, 1989, p.96.

10〉, 그 전시작품 중 위홀을 바나나로 코믹하게 표현한 “갈색점(Brown spots)” 〈그림 11〉이란 작품은 위홀의 “공장(Factory)”이란 작품에서 차용하였다는 불평을 듣게 되었다.

1984년 24살이 되던 해 그의 경력은 최고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의 명성이 높아가는 동안 작품 4개가 뉴욕 현대예술 박물관에 소장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고, 1985년 5월 뉴욕 타임즈는 표지에 바스키아의 그림을 실었으며, 그의 미숙하지 않은 날카로운 선은 자의식적인 것이 되었다고 기고하였다.

1986년 바스키아는 위홀과 절연하였고, 몇 개월 후 위홀의 사망소식으로 극도의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되면서 점점 더 은둔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 그림도 적게 그렸고, 소비적인 생활로 변하게 되었다. 이 때 바스키아의 작품들은 대개 훔날린 듯 하여 장식적이었으며 그것이 그의 취약점이 되었고 특히 드로잉에 있어서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1988년 바스키아는 3번의 전시회를 갖게 되었는데 1983년 이후에 거의 잃었던 밀도감을 다시 찾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되었다. 1988년 그의 마지막 전시가 브로드웨이의 갤러리에서 갖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평은 분분하여 최고의 작품이라는 평, 이전 작품의 반복일 뿐이라는 평을 모두 듣게 된다. 〈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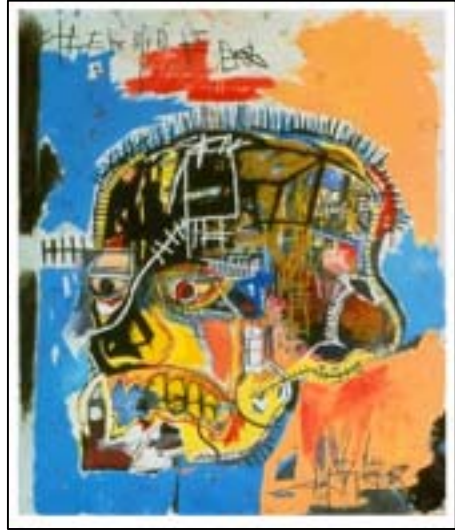
〈그림 3〉 뉴욕 뉴웨이브 전시회



〈그림 4〉 Untitled(Black Tar and Feathers), 1982



<그림 5> Untitled(detail),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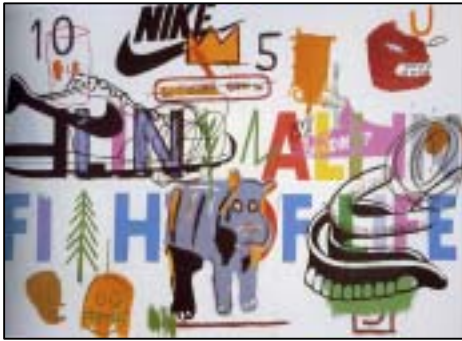
<그림 6> Untitled(Skull), 1982



<그림 7> 워홀, 바스키아, 클레멘테



<그림 8> Clindrone, 1984



<그림 9> Ailing Ali In Fight For Life, 1985



<그림 10> Untitled (Mary Boone) 1984-1985



<그림 11> Brown spots, 1984



<그림 12> Untitled, 1988

2. 바스키아의 작품세계

1) 바스키아 작품의 특성

(1) 바스키아 작품에 표현된 조형방법

바스키아의 작품에서 표현된 조형방법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표현적 붓질”이 작품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성향은 1979년에 제작된 엽서작품 〈그림 13, 그림 14〉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바스키아는 사진과 인쇄물을 콜라주하고 화면을 4등분으로 나눈 후 각 면마다 서로 다른 텍스처를 부여하고 때로는 반복되는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마지막 단계에 얇은 붓이나 때로는 크레용, 오일스틱, 납직한 붓 등으로 자신만의 감각적 드로잉을 구사했다. 그 후 사망할 때까지 제작된 작품들은 점차적으로 더 많은 표현적 붓터치들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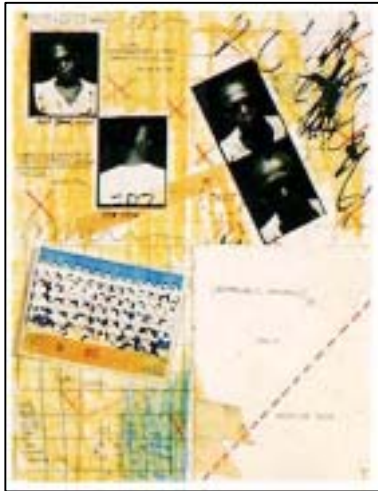
둘째, 자유로운 붓터치와 그것을 더욱 극대화시키기 위해 원시적이고 강렬한 색채를 사용하였다. 〈그림 15〉 “강렬한 원색의 부활”은 바스키아의 작품에서 드로잉 작품을 제외한 모든 페인팅에서 볼 수 있으며 고흐, 고갱, 마티스보다 더 강렬하고 개성있는 색을 사용했다.³⁰⁾ 바스키아는 의도적으로 정제되어 있지 않은 색들을 거침없이 사용했으며 특히 1980년대 초반에 제작된 작품에는 검정색이 많이 들어가있고, 검정 이외의 다른 색은 거의 없다. 〈그림 16〉 실제로 많은 작품들 속의 주인공 대부분이 검정색이고, 바스키아의 검정색은 바로 “흑인 Negro”를 상징한다.

셋째, 가장 특징적인 표현방법은 낙서의 속성인 과장되고 상징적인, 또는 직설적으로 과장된 “형상의 극대화”이다. 바스키아는 소외된 흑인들의 두상을 검은 타원이나 또는 해부학적 요소로 비참하고 절규하는 듯한 강한 이미지, 비웃는 듯한 단순한 형상 등으로 표현하여 교묘하게 사회 고발적이고 시위하는 듯한 이미지로 극대화시켰다. 〈그림 17〉

바스키아는 자신의 자화상도 그렸는데, 1983년 작 “Untitled(1960)” 〈그림 18〉에서 자신의 모습을 오직 검정색으로만 실루엣화하고 머리 스타일을 구체

30) 그의 후반기 작품들은 화려하고 강렬한 색들이 많이 쓰여진다. 특히 빨강, 노랑, 파랑의 세 가지 색인데 이 강한 원색과 검정색이 만나면서 더욱 강한 힘을 발휘하며 그의 표현주의적 이미지 전달이 더 확실한 효과를 낳는다. 81년 삼원색들로 내용을 만든 「Subjects」 〈그림 19〉처럼 노란색이 배경의 중심을 이루며 검은 사람, 즉 흑인 두 명과 빨강의 조각만이 그려져 있다. 또 83년에 만들어진 「Florence(피렌체)」 〈그림 20〉에서도 강렬한 적, 황의 대비와 검정색의 포인트로 작품을 구성했다.

적으로 묘사해, 이 작품의 모델이 자신임을 암시하였다. 더욱이 그림 윗부분에 자신의 출생연도(1960)를 기입함으로써 자화상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림 13> Untitled(Postcard),
1979



<그림 14> Untitled(Postcard),
197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15> Max Roach, 1984



<그림 16> Loans, 1981



<그림 17> Untitled, 1981



<그림 18> Untitled(1960),1983



<그림 19> Subjects, 1983



<그림 20> Florence, 1983

(2) 바스키아 작품의 상징적 의미

현대 미술의 언어와 기호, 상징적인 것들은 중요한 매체중 하나이며 의미 전달을 위한 기호로서의 문자는 시각적 아름다움이나 그것이 의미하는 내용, 혹은 손으로 쓴 필적에서 느낄 수 있는 정신상태 등의 여러 가지 형식으로 미술 작품 속에 끼어든다.

특히 바스키아는 작품 속에서 기호, 색상, 선 등을 사용하여 구체화된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바스키아는 가치, 신빙성, 소유권 등의 의미로써 ©³¹⁾ 라는 문자를 자주 사용하였는데, 그 중 가치의 의미가 강하다.

이와 같이 바스키아의 작품에는 여러가지 정보에 대한 흥미나 정열들, 실제 내용물들이거나 바스키아에게 직·간접으로 관련된 상징들의 기호로 가득 차 있다. 따라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기호들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요약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바스키아 작품의 주제별 상징적 기호

| 주제 | 상징적 기호 |
|-----------------|--|
| 돈 | One Cent, Dollar, Bill Andrew Jackson, Tax Free |
| 가치, 신빙성, 소유권 | Peso, ©, Estimated Value, 100%, Notary, Registered Trade Mark |
| 상품, 현금조작 | Petroleum, Gold, Platinum, Cotton, Salt, Tobacco, Alcohol, Heroin |
| 식품 배급 | Pig, Pork, Ribs, Lard, Chicken, Eggs, Cows, Milk, Poultry |
| 역사적 혹은 인물 | Malcolm X, Langston Hughes, Marcus Garvey |
| 혹인 영웅들 | Hank Aaron, Jesse Owens, Sugar Ray Robinson, Dizzy Gillespie, Charlie Parker |
| 억압과 인종말살 | Missionaries, Poachers, Cortez, Bishop Landau, Vasco Da Gama, Buffalo Bill Cody |
| 인종주의에 대한 언급 | Slaves, Slave Ships, Dark Continent Negroes, Mississippi, Harlem, Ghetto, Amos And Andy, Hollywood Apicans |
| 영화나 만화인물들 | Warner Brothes, A.A.P, Action Comics, Mad, Marvel Comics, Disney, Batman and Robin, Dick Tracy and Pruneface, Superman and Jimmy Olsen |
| 만화책에 나온 농담이나 속어 | Onion Gum, Skin Head Wig, Black Face Soap, X-Ray Glasses |
| 잡동사니 음식 | Pez, Jirry Pop, Corn Puaas, Black Cherry Soda |

31) 1952년에 체결된 세계 저작권 협약에 따라 저작권(copyright) 보호를 표시하는 기호이다.

이상과 같은 상징적 기호들은 대부분 문헌에서 얻은 정보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아프리카 벽화 미술책의 그림들은 아프리카 지역성과 상징적 기호들이 바스키아에게 드로잉에 대한 신호, 낙서와 연관된 이미지로 연결시키게 만들었다.

또한 바스키아는 헨리 드웨이퓌스 (Henry Dreyfuss)의 「상징 자료책」에서 거지들의 초기세대라고 할 수 있는 부랑자(Hobo)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였던 추상적인 기호들을 모아놓은 완벽한 사진 「호보 기호편」〈그림 21〉을 발견하여 이 기호체계의 많은 부분을 자신의 회화와 드로잉에 이용하였다. 그 이유는 이 기호들이 주는 시각적인 즐거움과 낙서적인 성격 그리고 기호가 의미하는 것이 자신의 작품주제와 때때로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담벼락이나 울타리, 보도, 문에 분필이나 흑연으로 낙서처럼 써서 남긴 기호들은 부랑자들에게 “물건을 받기 좋은 장소(good place for a handout)”, “이 사람들은 부자임(these people are rich)”, “여기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nothing to be gained here)”, “위험한 동네임(dangerous neighborhood)”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다.

1987년의 「Victor 25448」〈그림22〉에서는 밀쳐진 것처럼 보이는 인물의 주변에 뚜렷한 호보기호 몇 개를 집어넣고 그들의 번역까지 써 넣었다. “A BEATING WAITS YOU HERE AND NOTHING TO BE GAINED HERE (매질이 기다리며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 이것은 그림 속의 환멸과 패배의 메시지를 강조해 주었고, 바스키아의 육체적, 정신적 상태를 암시해주며 어쩌면 그의 죽음까지도 예견한 듯 보인다.³²⁾

32) Richard D. Marshall, op.cit., p.97-99

| 호보기호 | 의 미 | 호보기호 | 의 미 |
|------|---------------------------------------|------|-----------------------------|
| ↔ | NO USE GOING THIS DIRECTION | ㄴ | YOU CAN CAMP HERE |
| → | THIS WAY | ☞ | FRESH WATER, SAFE CAMPSITE |
| ⚡ | HIT THE ROAD! QUICK | ☹ | DENGEROUS DRINKING WATER |
| ⊗ | GOOD ROAD to FOLLOW | X | O. K. ALL RIGHT |
| △ | ROAD SPOILED (full of other hobos) | ⊗ | GOOD PLACE for a HANDOUT |
| 1 | DOUBTFUL | ☹ | ILL-TEMPERED MAN LIVES HERE |
| ㄷ | HALT | ㄷ | WELL-GUARDED HOUSE |
| ㄷ | THIS IS THE PLACE | ㄷ | THE OWNER is in |
| ㄷ | DANGEROUS NEIGHBORHOOD | ㄷ | THE OWNER is out |
| ☹ | THIS COMMUNITY (indifferent to hobos) | ㄷ | A GENTLEMAN LIVES HERE |
| 0 | NOTHING to be GAINED HERE | ㄷ | THESE PEOPLE ARE RICH |

<그림 21> 호보 기호편



<그림 22> Victor 25448"(detail), 1987

2) 바스키아 작품의 주제

(1) 자전적 경험

1980년부터 1982년 중반까지의 바스키아의 초기 작품들은 자전적 경험에 관한 주제를 표현하였다. 자동차, 지붕 위에 텔레비전 안테나가 있는 도시 건물들의 스카이라인, 건물 외관의 상업적 광고들, 비행기 그리고 하늘의 달과 같이 친숙한 소재들로 묘사하였고, 그 외에 왕관, 공증인의 도장, 저작권 상징과 같은 자신만의 중요하고 반복적인 이미지를 많이 도입하였다. 왕관은 자신의 작품 속 인물들에게 수여하는 존경과 찬미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바스키아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이기도 하다. 공증도장은 1977-79년 SAMO 문구들에 도입했던 저작권 상징의 연장이며, ©는 승인, 권위, 소유권 그리고 진품임을 나타내는 바스키아 자신의 도장이다. 이러한 소재들을 통하여 바스키아는 아이디어 소유권의 개념을 풍자하면서 합법성, 권위, 소유권에 대한 강박관념을 조롱하듯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동시에 자신의 작품에 인정, 승인, 독창성을 부여하였다.

자전적 경험에 관한 주제인 1981년작 “무제(붉은남자)(Untitled-RedMan)” 〈그림 23〉에서는 내장기관을 암시하는 얼룩과 밝은 빨간색 스프레이로 그려진 윤곽선 인물이 마치 경찰관이 끌어낸 부상자나 죽은 시체의 윤곽선처럼 보인다. 왕관은 오른쪽 하단 바닥에 떨어져 있고, 구급차는 바스키아가 7세 때 브룩클린 거리에서 공놀이를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던 경험을 상기시킨다. 이 사고는 젊은 미술가에게 잊지 못할 사건이었으며 초기 작품에서 자주 인용되었다.³³⁾ 1981년 “무제(Untitled)” 〈그림 24〉 역시 붉은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구급차가 어린아이의 그림처럼 묘사되어 어린시절의 교통사고를 환기시켜 준다. 또한 구급차의 위와 아래에는 AAA가 반복되어 써있다. 이 문자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와 바스키아의 첫 흑인영웅 야구선수인 헝크 아론(Hank Aaron)의 성(Family name) 중 첫 두 글자를 나타내는 이중적인 암시를 지닌다. 유명한 야구 선수에 대한 암시는 그림 속에 망치를 그려 넣음으로써 더욱 뚜렷해진다.³⁴⁾

이상과 같이 바스키아 미술의 중심은 인물이다. 그는 이내 자동차와 도시풍

33) Richard D. Marshall, op.cit., p. 81.

34) 바스키아는 헝크 아론의 전기를 매우 잘 알고 있었으며 헝크 아론이 홈런을 치는 모습에서 비롯한 별명 '망치질하는 헝크(Hammering Hank)'도 알고 있었다.

경과 같은 주제를 떠나서 자신의 독특한 인물 묘사 -특히 흑인 중에서도 화가 자신의 자화상-를 도입하였다. 초기 바스키아 인물들은 정면을 향해있으며 평평하고 선으로 단순하게 그려졌고 가끔은 부분적으로 뼈와 내장기관을 드러내 보였으며, 가장 자주 표현되는 것은 우월함, 특별함, 종교적이거나 왕실의 분위기를 드러내 주는 후광이나 왕관 또는 가시관이었다.

예를 들면, 바스키아 자신에 관한 극적 이야기는 1981년 작 “위험한 물-독이 든 오아시스(Acque Pericolose-Poison Oasis)” 〈그림 25〉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화면 중앙에 후광을 두른 검은색 인물이 양손을 가슴에 두르고 서있고, 죽은 짐승의 시체 위에는 파리가 들끓고 푸른색 ‘위험한 물’이 바로 옆에 있으며, 반대편에는 또아리를 틀고 있는 초록색 방울뱀이 입을 벌린 채 독니를 드러내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죽음이라는 위험한 환경을 통과하면서 자신이 느끼고 있는 위험한 위치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의 인물에서는 당시 20살이었던 바스키아 자신의 특징인 냉정함, 자신감 그리고 확고함을 전달해준다. 또한 바스키아는 종종 자신을 더 직설적으로 자세히 묘사했다. 즉, 화가로서의 그는 단순한 윤곽선에 눈과 입만 여백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를 검은색으로 채운 후 **빠죽빠죽한 머리가** 마치 왕관처럼 보이는 자화상으로 자주 그렸다.³⁵⁾

결론적으로, 바스키아의 작품에는 자전적 주제에 관한 예들이 매우 많다. 가끔은 개인적인 친구, 사건, 날짜, 이름을 언급한 예도 있으며, 위홀처럼 가까웠던 친구의 초상화가 어머니, 아버지, 푸에르토리코식 이름으로 알려진 외할머니의 초상화만큼이나 많다.

1982년 말 이후 나머지 생애동안 바스키아의 작품은 점점 더 야심차고 복잡해졌다. 가끔 복수의 패널을 이용하기도 하였고 하나의 캔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화포 틀을 그대로 노출시키거나 글씨, 콜라주,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이미지들로 표면을 채우기도 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은 흑인과 히스패닉스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역사적 흑인 인물 또는 사건과 스스로를 강하게 동일시하는 측면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35) 한 무제의 자화상에서는 자신의 출생년도인 1960을 포함시킴으로써 주제를 더욱 확실하게 하기도 했다. 〈그림 14〉



<그림 23> Untitled(Red Man),
1981



<그림 24> Untitled(detail), 1981



<그림 25> Acque Pericolose-
Poison Oasis, 1981



<그림 26> Untitled(Aaron), 1981

(2) 인종주의

바스키아가 가장 몰두했던 작품들은 거의가 '유명한 흑인 운동선수'들을 영웅시 하는 것과 '유명한 미국 재즈 음악가'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림 26, 그림 27> 또한 작품 속에서 볼 수 있는 무작위적인 이름³⁶⁾을 통해 흑인 역사에 대한 관심과 지식의 반경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흑인 운동선수와 음악가, 노예와 남부 그리고 화가 자신의 경험과 역사에 관한 작품의 비중을 생각해 볼 때, 인종주의는 바스키아의 작품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주제이다. 예를 들어 바스키아가 마네 (Manet)의 '올랭피아(Olympia)'³⁷⁾를 자신의 스타일로 재구성한 초기 작품에서 기존의 미술작품에서 흑인을 묘사한 것이 거의 없었음을 역으로 보여주었다. 즉 1982년의 "무제-올랭피아의 하녀(Untitled-Maid from Olympia)" <그림 28> 은 근대 서구 미술에선 보기 힘들었던 흑인을 묘사한 마네의 이미지를 선택하여 흑인 인물이라는 점과 하녀로서의 위치에 관한 관심을 이끌어내었던 작품이다. 이처럼 바스키아는 데뷔부터 미술가로서 자신의 주제를 흑인은 물론 그 주제를 포용할 수 있는 관련된 모든 것을 이용하였다.

바스키아는 외에도 노예, 남부, 인종주의와 관련된 많은 작품 속에 노예 경매(Slave Auction), 검은 대륙(Dark Continent), 흑인(Negroes), 미시시피강(Mississippi), 할렘(Harlem)³⁸⁾, 게토(Ghetto)³⁹⁾와 같은 단어들을 함께 사용하여 상징적 의미를 표출함으로써, 자신의 관심을 오직 흑인 차별과 편견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정복, 억압, 종족 말살과 같은 모든 상징들까지도 포괄하였다.⁴⁰⁾ 그리고 인디언 천막의 상징을 통해 미국 인디언을 자주 등장시켜 편협한 백인이 인디언 종족에 대한 기억을 축소시킨 나무에 한줌의 시가를 든 모습을 새긴 시가 상점의 광고처럼 미국 원주민을 단순한 외양으로 묘사하

36) Malcom X , Lanston Hughes, Marcus Garvey, Hank Aaron, Jesse Owens, Jersey Joe Walcott, Miles Davis, Dizzy Gillespie, Charlie Parker, Max Roach, Louis Armstrong, Billie Holiday, Nat King Cole 등이 그 인물들이다.

37) 올랭피아(Olympia) : 1865년 에두아르드 마네가 그린 인물화로 고양이와 창녀 그리고 그녀의 시종인 흑인여자가 그려져 있다.

38) 뉴욕시에 있는 흑인 거주 구역.

39) 빈민가 구역.

40) 여기에는 Missionaries, Poachers, Cortez, Bishop Landau, Vasoo Da Gama, Buffalo Bill Cody, Der Fuhrer, Papa Doc, Baby Doc, Idi Amin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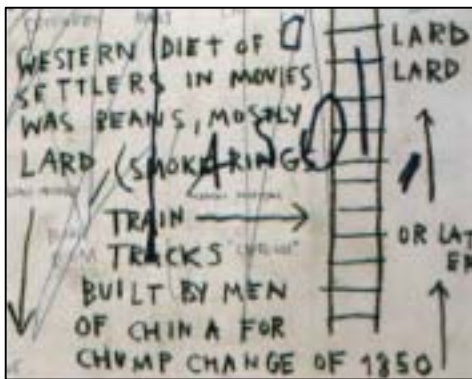
였다. 또한 미국 서부를 관통하는 철도를 1850년 중국인들이 놓았다고 인용⁴¹⁾ 함으로써 미국에서의 중국인의 착취라는 주제에도 도전하였다. <그림 29>



<그림 27> CPRKR, 1982



<그림 28> Untitled(Maid from Olympia)(detail), 1982



<그림 29> Untitled(Plaid) (detail), 1983



<그림 30> A Panel of Experts, 1982

41) Bullt By Men Of China For Chump Change Of 1850



<그림 31> Piano Lesson (for Chiara), 1983



<그림 32> Napoleonic Stereotype Circa '44, 1983



<그림 33> Life Like Son of Barney Hill(detail), 1983



<그림 34> Untitled (collaboration with Andy Warhol) (detail), 1984



<그림 35> Untitled(detail), 1986



<그림 36>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Derelict (detail), 1982

(3) 만화테마

바스키아는 어린 시절부터 만화를 매우 좋아하여, 후에 자신의 회화 및 드로잉 작품에 만화테마를 자유로이 이용하였다.

특히 “전문가들(A Panel of Experts)” <그림 30> 에서는 콜라주된 것 같은 두 인물을 주먹을 맞댄 만화 이미지로 강한 인상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여 흑인 권투선수에 대한 바스키아의 존경을 표출하였다. 그리고 어린 관객이 설탕발린 팝콘 과자(Sugar Coated Corn Puffs)를 맛있게 먹으면서 보는 일요일 오전의 만화영화(Sunday Morning Cartoon)속의 주인공들로 묘사되어 이러한 만화적 성격을 더욱 뚜렷하게 하고 있다.

다른 작품에서도 만화 테마를 전적인 주제로 사용하였다. 그 예로 1983년의 “피아노 수업(Piano Lesson)” <그림 31> 의 배트맨과 로빈, 같은 해 “나폴리의 번개(Flash in Naples)”의 슈퍼 영웅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이 1980년대 중반의 바스키아 작품들은 어린 시절과 소년기의 대중문화의 상징인 1960년대 초 만화 속의 영웅이나 주인공, 대중적 스타를 주로 다루었으며, 미술사, 해부학, 금전적 가치를 자주 언급했던 로이 리히텐슈타인(Roy Richtenstein), 래리 리버스(Larry Rivers), 앤디 워홀의 작품을 연상시키는 대중적 도상도 뚜렷하게 이용하였다. 그래서 바스키아의 작품은 만화책과 만화영화 스튜디오(Action Comics, Marvel comics, Disney, Warner Brothers, A.A.P., Mayer, Universal Studios), 만화와 만화책 주인공들(Porky Pig, Superman, Jinny Olsen, Batman, Robin, Joker, Dick Tracy, Popeye),

만화책속의 장난 속임수(Onion Gum, Skin Head Wig, Black Face Soap), 즉석식품(Pez Candy, Jiffy Pop Corn Puffs, Black Cherry Sody)과 같은 수많은 예들을 표현하였다. 또한 어린이 만화 속에 반영된 세계를 사회 정치적 상황의 소우주로 보았고, 만화를 1936년 올림픽 또는 조 루이스의 권투 경기같은 스포츠처럼 정치적인 선전목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나폴레옹의 전형(A Napoleon Stereotype As Portrayed In Cartoons Circa 1940-45)” <그림 32> 에 잘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4) 금전적 가치

바스키아의 작품은 항상 다양한 관심과 에너지로 넘쳐있으며 작품 속의 실제적인 내용 즉 단어들은 작가 자신에게 중요한 주제를 설명해준다. 특히 권력과 부의 생성, 남용, 자원, 동물, 농산물의 가치와 이용에 대한 자신의 깊은 관심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단어들을 지속적으로 선택하여 자신의 작품 속에 삽입하였다. 바스키아는 이를 민족적 유산, 인종주의, 대중문화, 해부학, 흑인 역사상 존경받는 인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결합시켰다. 5 센트(Five Cents), 달러 지폐(Dollar Bill), 5천 달러(Five Thousand Dollars), 자유(Liberty) 등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금전적 가치’와 ‘사물의 가치’에 관한 바스키아의 관심을 보여주었다. <그림 33>

바스키아는 1984년 앤디 워홀과 공동으로 제작한 작품에서 워홀의 Arm & Hammer 상표를 물감으로 지우고 미국 대통령의 자리에 흑인 재즈 음악가를 그려넣은 1 센트 동전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림 34>

바스키아의 관심은 왕관(Peso Neto), 추정 가치(Extimated Value), 면세(Tax Free), 등록 상표(100%, Registered Trademark)와 같은 가치와 진위성의 문제까지도 포함하였다. 그러나 가장 강하게 느낀 호기심은 음식 생산과 그것의 조절, 보급과 이득에 대한 것이었다. 석유와 그 부산물, 닭과 달걀에 대한 잦은 언급은 무역과 사고 파는 거래에 대한 바스키아의 관심을 잘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5) 해부학과 죽음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서 받은 「그레이 해부학」 책은 바스키아에게 인체의 골격 구조에 평생 관심을 가질 정도로 강하고도 지속적인 인상을 남겼다. 또

한 회화와 드로잉 작품 속에 있는 많은 이미지들에 이름을 붙이고 분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구체적으로 자신과 관련된 많은 이미지들에서 색채를 배제하기도 하고 자신이 어렸을 때 제거했던 비장(Spleen)이라는 명칭을 적어 자신을 암시한 것에서 알 수 있다.

1966년 뉴욕 레이널사에서 출판된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의 방대한 책⁴²⁾ 역시 바스키아가 해부학에 흥미를 갖게 하였고, 폴 리처(Paul Richer)의 「예술적 해부학(Artistic Anatomy)」은 작품에 폐, 심장, 두뇌, 팔, 다리, 발과 같은 내장기관을 드로잉과 회화에 이용하게 되었다. 특히 레오나르도의 책이 해부학적 작품의 대부분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즉 1982년 작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히트작(Leonardo da Vinci’s Greatest Hits)”과 1986년의 “무제(Untitled)” <그림 35> 에서 그 특정한 이미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죽음이라는 주제 역시 바스키아 작품 속에 편재하는 주제이다. 초기 작품의 거칠게 잘려진 머리와 가면같은 얼굴들은 데드 마스크나 해골의 불길한 느낌을 항상 전달하며, 속이 빈 눈이나 드러난 이빨은 여윈 머리 또는 부패된 해골을 암시한다. 1981년작 “무제-해골(Untitled-Skull)” <그림 6> 의 두상에는 흉터와 깨맨 자국들이 보인다. 이와 같은 해골과 뼈의 잦은 표현은 해부학적 이용이라는 측면 외에도 묘지, 유령의 집, 부두교 묘지와 죽음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킨다. 1982년 21세 때의 자화상 “젊은 낙오자로서의 미술가의 초상(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Derelict)” <그림 36> 에서는 바스키아가 죽음이 가까웠음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하며, 그의 작품 모든 단계에 존재하였던 죽음이라는 주제는 1987-88년의 후기 작품에서 더 자주 그리고 더 직접적인 암시로 다루어졌다.

결론적으로 바스키아의 주제를 요약해보면 다음 <표2>와 같다.

42) 이 책은 바스키아의 스튜디오의 많은 책 중 그가 지속적으로 참고했던 책 중 하나였다

<표 3> 바스키아의 작품 주제

| 주제 | 특성 | 상징적 기호 | 조형 방법 |
|--------|---|---|--|
| 자전적 경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욕 거리와 환경에서 가져온 자신만의 중요하고 반복적인 이미지 도입 • 자신의 독특한 인물 묘사(자화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욕의 거리에서 차용한 이미지 (자동차, 지붕 위에 텔레비전 안테나가 있는 도시 건물들의 스카이라인, 건물 외관의 상업적 광고들, 비행기 그리고 하늘의 달 등) • 왕관, 공증인의 도장, 저작권 상징[©] 등을 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캔버스 위에 대담하고 회화적인 표현 • 후기에는 복수의 패널을 이용 • 캔버스의 화포 틀을 그대로 노출 • 기호, 콜라주,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이미지들로 표면을 채움 |
| 인종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흑인 운동선수와 음악가 • 흑인 차별과 편견, 정복, 억압, 종족 말살과 같은 모든 상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흑인 영웅들의 이름 • Slave Auction, Slave Ships, Dark Continent, Negroes, Mississippi, Harlem, Ghetto와 같은 단어들 • 인디언 천막의 상징 등 • 소외된 흑인들의 두상을 검은 타원이나 또는 해부학적 요소로 표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지 극대화 |
| 만화테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화테마를 자유로이 이용 • 대중 소비문화의 도상들을 주제로 포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속에서 만화책과 만화영화 스튜디오, 만화와 만화책 주인공들, 만화책속의 장난 속임수, 즉석식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드로잉을 스크린에 이용하여 과장되고 상징적인 형상의 극대화 |
| 금전적 가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 금전의 가치에 관한 관심을 드러내는 단어들을 작품 속에 삽입 • 민족적 유산, 인종주의, 대중문화, 해부학, 흑인 역사상 존경받는 인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결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전적 가치’와 ‘사물의 가치’에 관한 관심(Five Cents, Dollar Bill, Five Thousand Dollars, Liberty 등과 같은 단어를 사용) • 석유와 그 부산물, 닭과 달걀에 대한 잦은 언급으로 무역과 사고 파는 거래에 대한 관심 | |
| 해부과 죽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격 구조 등의 해부학적 요소를 작품에 삽입 • 상징들을 통해 데드 마스크나 해골의 불길한 느낌 여윈 머리 또는 부패된 해골 등을 암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죽음의 이미지를 표현(거칠게 잘려진 머리와 가면같은 얼굴들, 속이 빈 눈이나 드러난 이빨 등) • 해골과 뼈의 잦은 표현으로, 해부학적 요소 • 묘지, 유명한 집, 부두교 묘지와 죽음에 대한 기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과 관련된 많은 이미지들에서 색채를 배제 |

3. 텍스타일 디자인의 패션 페인팅

1) 텍스타일 디자인과 패션 페인팅

(1) 텍스타일 디자인의 개념

최근 현대 패션에서 중요한 이미지를 표출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텍스타일 디자인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텍스타일 디자인이 인간의 감성이 원하는 컬러와 무늬를 창출하여 의생활 및 주생활의 풍요로움과 쾌적함을 표현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넓은 의미의 텍스타일 디자인은 입체적인 형태까지를 포함시킨 디자인으로서, 텍스타일(섬유, 실, 옷감 등)을 소재로 하여 그 목적에 맞는 조형 활동을 하기 위한 기획설계를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는 실을 짜거나 엮는 것에 의해, 혹은 직물에 염색이나 마무리 가공을 함으로서 텍스처, 패턴, 염색을 표현하는 범위로 제한한다. 그러므로 텍스타일 디자인을 날염(프린트) 디자인⁴³⁾, 의장 디자인, 선염(사염) 디자인⁴⁴⁾, 후염 디자인, 편물(니트) 디자인, 자수 디자인으로 세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한 프린트(날염) 디자인은 가장 보편적인 텍스타일 디자인으로서, 직물 위에 여러 가지 무늬와 색을 부분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프린트(날염) 디자인을 용도별로 구분해 보면 어패럴용, 인테리어용, 액세서리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어패럴용(패브릭) : 남녀 의류, 언더웨어, 스포츠 웨어, 수영복, 아동복 등
- 인테리어용(실내장식, 침장류) : 커튼, 테이블보, 침대커버, 쿠션, 벽지 등
- 액세서리용(잡화류) : 넥타이, 스카프, 손수건 등 이다.

텍스타일의 성능은 섬유, 실, 직물 등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변화가 초래된다. 따라서 텍스타일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섬유소재, 실, 직물의 종류, 가공법 등에도 정통해야 한다. 이는 디자인에 있어서 형태, 색채, 재질감이라고 하는 조형요소가 텍스타일의 성능에 의해 비로소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텍스타일 디자인 중에서도 프린트 디자인의 일종인 패션 페인팅의 개념을 고찰하기로 한다.

43) 원단을 직조한 다음에 프린트하여 색이나 무늬를 넣어 디자인 하는 것.

44) 염색을 미리 한 실을 직조하여 디자인하는 것으로 앞, 뒤 색이나 무늬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2) 패션 페인팅(Fashion Painting)의 개념 및 기법

패션 페인팅이란 간단한 기호나 문자에서부터 복잡한 자연, 인물 그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디자인을 전통 의상 및 현대 의상 또는 직물을 이용한 인테리어용품 등 다양한 소재에 직접 페인팅하여 작품을 만들어 내는 새로운 개념의 아트 페인팅으로서, 미국 Tri-chem 사가 개발한 유성 및 수성 아크릴 안료를 이용하여 자기만의 독창적인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생활 장식 기법을 말한다.

패션 페인팅은 직물, 의류, 목재가공물, 유리, 금속 등 어떠한 소재에도 쉽게 표현 및 응용이 가능하며, 오늘날 보통 의류에 그림을 그리는 것만을 의미하고, 포괄적인 의미의 패션페인팅, 즉 의류, 도자기, 가방, 벽, 전자 제품 등 실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재에 페인팅하는 것은 핸드페인팅이라고 한다.

따라서 패션 페인팅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현의 용이성이다. 페인팅에 쓰이는 안료는 튜브 끝에 달린 볼 포인트 칩으로 물감이 나오는 펜 타입이므로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함은 물론 누구나 손쉽게 소재에 원하는 그림을 직접 그릴 수 있다. 두 번째는 소재의 다양성이다. 패션 페인팅의 소재에는 제한이 없어 의류를 비롯한 직물은 물론 착색이 불가능했던 유리나 나무, 비누, 심지어 금속 표면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패션 감각을 표현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재료의 영구성이다. 즉, 패션 페인팅에 사용되는 직물용 안료는 기존의 안료들과는 달리 보조재나 마감재 등의 전후 처리 과정이 필요 없으며 착색 후 세탁이나 드라이 크리닝, 표백 등에도 전혀 탈색이나 변색되지 않는다. 네 번째는 안료의 안전성이다. 패션 페인팅에 사용되는 안료 성분은 일반 페인트 성분과는 달리 무해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어린이 용품이나 주방용품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상과 같은 패션 페인팅의 특징을 기본으로 본 연구의 실제작품에 사용된 안료의 종류 및 이에 따른 페인팅 기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 이지 플로(E Z Flo) 직물용 페인트

패션 페인팅의 가장 기본적인 유성안료로 볼 포인트 칩이 달려 있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직물 이외에도 원목, 도자기, 유리 등 어떠한 소재에도 응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단 칠해서 착색이 되면 세탁이나 드라이 크리닝, 표백에도 탈색이나 변색이 되지 않으며 이 경우 착색 과정에 보조재가 필요하지 않으며, 튜브를 수직으로 세워 튜브 보호대를 항상 끼워서 사

용하되 볼 포인트 칩을 항상 깨끗이 사용할 필요가 있다.

② 칼라라이트(Colorites) 페인트

칼라 라이트 페인트는 질은 색상의 소재나 스텐실 기법 등에 효과적인 안료로, 모든 섬유, 가죽에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청바지처럼 질은 의상이나 직물에 사용할 경우 색상이 뚜렷한 특징이 있어 화려하고 밝은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 튜브에서 안료를 짜내어 붓으로 색칠을 하거나 튜브에 파인 라인 칩을 끼워 직접 직물에 짤 다음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있다. 단, 사용 시 칼라라이트 페인트는 물을 타서 묽게 하면 페인트의 접착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에 색을 연하게 하고 싶을 때에는 칼라라이트 익스텐더(희석제)를 첨가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색상 혼합이 자유롭지만 칼라라이트 페인트를 칠한 곳에는 다른 종류의 페인트를 덧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페인트칠이 끝난 후 반드시 90초 동안 열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즉, 덧칠을 대고 다림질을 해야 하는데 칠한 곳을 눌러주어야 하고, 이 과정은 반드시 세탁 전에 거쳐야 한다. 다만 가죽에 사용할 경우 또는 입체안료를 70% 이상 섞어 사용할 경우에는 열처리가 불필요하다.

③ 페베오(Pebeo) 페인트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수성(water-based)페인트로서, 구타(gutta)와 세타칼라(setacolor) 두 종류가 있는데 모든 직물에 염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라인을 그릴 때에 사용하는 구타는 모두 12색으로 따로 붓을 사용하지 않고 얇은 선을 그릴 때 사용한다. 손으로 힘을 쥐서 물감 튜브의 작은 구멍으로 나오는 물감으로 그림을 직접 그릴 수 있으므로 글씨를 적어 넣거나, 그림의 라인을 덧칠할 때 특히 효과적이다.

면을 칠할 때에 사용하는 세타칼라는 상당히 많은 59가지의 색(투명 20색, 불투명 20색, 형광 5색, 펄 13색, 소용량 세트 10색)으로 구성되어 붓을 이용하여 그리므로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구타나 세타칼라는 수성이기 때문에 마르기 전에 물로도 지울 수 있으며, 얼마든지 덧칠이 가능하여 색상 혼합이 자유롭고, 안료는 다림질로 고정시킬 수 있다. 즉, 색을 칠하고 잘 말린 후에, 뒷면을 다림질(면 다림질 온도인 160~180℃로 2~3분)해주면 안료가 고정된다. 다만, 한 번 마른 후에는 그림이 지워지지 않으므로 수정을 원하는 경우 마르기 전에 수정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패션 페인팅 작업을 위해 주로 이지 플로 직물용 페인트, 칼라라이트 페인트, 삐베오 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바스키아의 작품세계를 응용한 실제 작품을 제작하기로 한다.



2) 팝아트 패션에 표현된 그래피티

팝아트는 1950년대 중·후반 미국에서 추상표현주의의 주관적 엄숙성에 반대하고 매스 미디어와 광고 등 대중 문화적 시각 이미지를 미술의 영역 속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했던 구상 미술의 한 경향을 말하며, 대표적인 작가는 앤디 워홀이다. 그는 마릴린 먼로, 엘비스 프레슬리 등 대중문화의 스타나 저명인사들을 캔버스에 반복적으로 묘사하거나 임의적인 색채를 가미함으로써 순수 고급 예술의 엘리티시즘⁴⁵⁾을 공격하고 예술의 의미를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일련의 작품을 발표했다.

다른 한편으로 팝아트는 반(反)예술의 정신을 미학화하고 상품미학에 대한 진정한 비판적 대안의 제시보다 소비문화에 굴복한 듯 보이나, 텔레비전이나 매스 미디어, 상품광고, 쇼윈도, 고속도로변의 빌보드와 거리의 교통표지판 등의 다중적이고 일상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코카 콜라, 만화 속의 주인공 등 범상하고 흔한 소재들을 미술 속으로 끌어들이함으로써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이라는 이분법적, 위계적 구조를 해체시키고, 산업사회의 현실을 미술 속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한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상과 같은 팝아트는 현대 패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선명한 색으로 대조된 배색과 단순한 기하학적 모티브를 배열하고 회화적인 효과를 표출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65-66년 S/S 컬렉션에서 발표된 이브 생 로랑의 팝아트 드레스<그림 37>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드레스는 팝아트의 특징인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그 자체, 즉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만물을 기하학적 무늬(태양, 초승달, 여성의 얼굴, 누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컬렉션에서는 검정색, 자주색, 분홍색, 빨강색을 주로 사용하여 색의 대비 및 동화를 동시에 보여주었는데, 이는 앤디 워홀에게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대중문화와 소비문화의 속성을 지닌 팝아트는 모든 기존 주위 환경에 대해 신선함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고, 이에 60년대의 패션을 혁신적이고 전위적인 모드로 발전시켜 팝아트 패션을 출현시키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팝아트 패션은 이미지의 대중화, 형상의 복제, 표현 기법의 보편화에 의한 개방과 비개성이라는 특징으로, 특히 패션 페인팅의 실크 스크린

45) 엘리트주의 또는 엘리트를 추구하는 성향을 드러내는 것, 즉 소수만이 공유하고, 일반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닌 선택된 자만을 위한 것들을 뜻한다.

기법이 산업화와 맞물려서 소비 문화적이고 대중 문화적이며 통속적인 팝아트의 특성을 드러내도록 하였고, 예술의 대중화에 기여하여 대중에게 순수 예술과 복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준 계기가 되었다. 즉, 팝아트 패션은 예술 사조를 패션에 담아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브 생 로랑의 몬드리안 드레스 <그림 38> 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팝아트 패션은 특별한 사건의 연속된 복제로 특수하고 쇼킹한 이미지를 일상적이고 둔감한 것으로 바꿔 놓는 실크스크린의 판화 기법, 티셔츠나 의복의 무늬에 도입된 그래피티와 상징적 기호 등을 텍스타일 디자인의 원천이 되었다. 그 한 예로 성조기가 60년대 말 패치워크나 프린팅으로 유행하여 속옷에까지 프린팅 되었고, 성조기로 전체 의상을 디자인하여 미국적이고 민속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작품도 발표된 것을 들 수 있다. 최근에 다시 그래피티, 프린트 등으로 팝아트적 이미지를 표현하였는데, 그래피티 무늬는 메시지 티셔츠 <그림 39> 로 발전하여 환경오염, 전쟁, 공포, 기아, 갈등 등의 사회비평 슬로건으로 도시환경을 고발하여 팝아트 패션으로 하여금 사회비평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그 예로 2003 F/W 컬렉션에서는 눈길을 끄는 문양과 컬러를 사용한 프린트 등을 통해 팝아트 패션을 보여주고 있다. 이 컬렉션에서 카스텔바자크(Castelbajac)는 레터링과 사진의 콜라주 기법을 디자인으로 활용하였고, 런던(London)의 패션 이스트(Fashion East)는 만화의 모티브를 프린트로 차용하고, 어린아이들 장난감 같은 소품이나 과장되게 표현된 보석 등을 통해 좀더 유희적으로 팝아트 패션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0>

이상과 같이 팝아트 패션에는 대중들이 좋아하는 기호, 식품, 문자, 제품들의 일상적인 이미지들은 물론이고, 디자인, 광고, 영화, 패션 등 다양한 부문에서 얻어진 대상을 활용하여 팝아트의 대중성과 일상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팝아트의 대표적인 작가인 앤디 워홀이 주로 사용한 실크스크린 기법이 사용되고, 바스키아가 주로 사용했던 조형방법 중 하나인 그래피티와 상징적 기호의 삽입을 이용하여 표현되고 있다. 즉 프린트 디자인의 일종인 패션페인팅에 사용되는 실크스크린 기법 및 그래피티와 상징적 기호가 팝아트 패션에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패션 페인팅 작품 제작에 바스키아의 작품에서 사용된 그래피티 기법 및 상징적 기호의 삽입 등을 응용하여 보기로 한다.



<그림 37> 팝아트 드레스, 65-66년 S/S 컬렉션

<그림 38> 몬드리안 드레스, 1965

<그림 39> 메시지 티셔츠



<그림 40> 2003 F/W 컬렉션

Ⅲ. 작품 제작 및 해석

1. 디자인 의도

본 연구에서는 바스키아의 작품의 조형방법 및 작품에 드러난 주제를 살펴 보았다. 즉, 바스키아의 작품은 표현 기법이나 스타일에서 모던 미술의 방법을 차용하면서도 대부분 회화(畵)를 가하지 않은 원시적인 표정들로 표현되었고, 배경에는 격렬하게 낙서화된 것을 특징으로 하였으며, 거칠고 복잡하면서도 직감적·충동적이고 직선적인 표현터치로 재구성하여 자신만의 현대적인 메시지를 표출시켰다. 또한 바스키아의 작품에는 사회적, 정치적 부조리를 예술적으로 통합함으로써 흑인역사와 대중문화가 자전적 경험과 함께 표현되었으며, 그의 회화에 나타난 주제를 크게 ‘자전적 경험, 인종주의, 만화 테마, 금전적 가치, 해부학과 죽음’으로 나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바스키아의 작품의 조형방법 및 작품에 드러난 주제에서 영감을 얻어 이를 응용한 패션 페인팅 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디자인 의도를 제시하기로 한다.

먼저, 실제 작품 제작의 주제는 바스키아의 작품 주제-자전적 경험, 인종주의, 만화테마, 금전적 가치, 해부학과 죽음-를 응용하고, 제재로는 현대인의 대중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일상과 가장 밀접하고 노동의 의미가 내포된 진(Jean)과 티셔츠(Tee shirt)를 사용하기로 한다.

페인팅에 있어서는 첫째, 낙서 화가로서 바스키아가 주로 사용했던 방법인 상징적인 기호와 글귀 등을 이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냄과 동시에 graffiti 효과를 최대한 살리도록 드로잉하고, 둘째, 사물의 형상을 재조직하여 극대화함으로써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며, 셋째, 강렬한 원색을 소재 고유의 색상과 조화되도록 하면서 과감하고 거친 듯한 붓터치와 세심한 덧칠로 감각적이고 표현적으로 페인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바스키아의 작품의 형식 및 주제와 접목한 패션 페인팅 작품을 제작하였다.

2. 작품 제작 및 해석

1) 자전적 경험

(1) 작품 1

- ① 소개 - 홀터 넥 (Halter Neck) 스타일의 면 티셔츠에 활동적이고 자유로움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 ② 작품 해석 - 바스키아가 자신의 자전적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던 낙서기법을 활용하기 위해 구타로 LIBERTY, TEETH, BLOOD 등의 상징적 기호를 반복적으로 낙서하듯이 아무렇게나 적어 놓는 기법으로 페인팅한 작품이다. 또한 도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그레이계열의 구타와 세타칼라로 페인팅하였고, 레드, 그린, 옐로우의 색상의 대비를 주어 도시 생활의 활력과 야성적 이미지를 동시에 표현하여 도시의 양면성을 반영하였다. 전체적으로 거친 붓 터치와 아무렇게나 벽에 낙서해놓은 듯한 회색 선의 덧칠로 그래피티 효과를 최대한 살려 페인팅 하는데 작품의 포인트를 두었다.
- ③ 작품 사진 -



(2) 작품 2

- ① 소개 - 네크라인에 금장식이 있으며 어깨가 드러나는 블랙색상의 민소매 티셔츠를 이용하여 활동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 ② 작품 해석 - 바스키아의 작품 특성 및 표현 기법을 본 연구자의 자전적 경험으로 표현하였다. 즉, 전체적으로 손목시계 이미지를 차용하여 Nailist, Time, Work 등의 상징적 기호를 적어 넣음으로써 연구자 개인의 경험을 표현하였다. 앞면을 세로로 가로 지른 시계의 상단에 Top 이라는 상징적 기호와 화살표를 그려넣어 최고의 직업을 지향하는 연구자의 소망을 드러내었고, Nailist, Work 등의 기호로 연구자의 노력과 현재의 모습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앞면을 가로로 가로지르는 시계는 Time, Work 등으로 Nailist로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재를, 그리고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을 통해 젊음과 시작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제작은 전체적으로 레드, 블루, 옐로우가 조화되도록 하면서도 강렬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세타칼라로 거칠게 붓터치함과 동시에 황금색 구타를 사용하여 덧칠하였다.

- ③ 작품 사진 -



(3) 작품 3

- ① 소재 - 화이트 색상의 면 티셔츠를 이용하여 소박함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 ② 작품 해석 - today, happy, worker, job, life, energy 등의 상징적 기호를 낙서한 듯 적어 넣음으로써 그래피티의 느낌을 살려 연구자의 경험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은방울꽃, 연꽃으로 동양적 이미지를 표출하였고 레드를 사용하여 강렬한 느낌을 더하였으며, 파란 호수에 떠다니는 꽃을 동시에 표현함으로써 환상적인 느낌을 도출하여 누구나 꿈꾸고 있는 이상적인 낙원에 대한 환상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반면 아랫부분에는 짙은 그레이를 사용하여 바위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slump 등의 글귀를 적어 척박하고, 어려운 현실의 삶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린 색상 원둘레에 황금색 구타로 라인을 덧칠함으로써 새싹의 이미지를 나타내어 현실 극복의 의지를 아울러 표현하였다. 전체적인 이미지는 호수, 연꽃 등의 형상을 극대화하고, 그래피티 기법을 더하여 연구자 개인의 경험과 현실세계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 ③ 작품 사진 -



(4) 작품 4

- ① 소개 - 화이트 색상의 면 티셔츠를 활용하여 자전적 경험에 관한 주제를 자유분방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 ② 작품 해석 - 전체적인 이미지는 화산이 폭발하는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다. 화산 폭발은 젊음과 열정의 발산과 더불어 화산섬인 제주도의 이미지를 반영하고자 한 것이며, 연구자의 이니셜인 K.E.S와 now, 2005 등을 새겨 넣음으로써 연구자의 일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화산 폭발에 의해 상승하는 형상은 생동감과 야성적인 이미지 및 강렬함을 드러내도록 한 것이며, 전체적으로 그래피티 효과를 위해 드로잉하고, 거친 듯한 붓질을 하는데 포인트를 두었다.

- ③ 작품 사진 -



(5) 작품 5

- ① 소재 - 클래식한 스타일의 블루진 바지를 이용하여 개척자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 ② 작품 해석 - 뉴욕의 도시 생활을 주제로 한 EMPIRE(1983년 昨)을 응용하여 제작하였다. 청바지 한 쪽 다리 앞면 전부를 레드, 블루의 대비가 뚜렷하도록 페인팅하였고, 특히 청바지의 빛바랜 색상과 어울리도록 모래를 뿌린 듯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위에 덧칠 하였다. 이러한 강렬한 색채 대비와 넓은 붓칠 및 라인의 섬세한 덧칠을 통해 바스키아의 페인팅 기법을 도입한 것으로, 그래피티 효과를 최대한 살리고자 하였다. 또한 바지 밑단에 블루 색상을 이용하여 생동하는 기운을 묘사하였고, 그 위에 그려넣은 엠파이어 빌딩을 통해 도시 생활을 묘사함과 동시에 러브, 눈동자 등을 그 위에 덧그려 넣음으로써 현대인의 사랑에 대한 갈증을 동시에 나타내고자 하였다.

- ③ 작품 사진 -



(6) 작품 6

- ① 소재 - 작업복을 이용하여 노동의 이미지를 극대화 시키고자 하였다..
- ② 작품 해석 - 강렬한 원색의 페인트를 사용하여 거칠고 대담하게 여러 번 덧칠하고 그 위로 다시 화이트로 아무렇게나 낙서한 듯 페인팅하였다. 또한 연구자 이니셜인 K.E.S를 바지 양쪽 중앙에 입체감이 나도록 황금색으로 덧칠함으로써 연구자의 노동의 경험을 드러내고자 하였고, 별 모양은 연구자의 욕망을 표현한 것이다. 즉, 본 작품은 노동의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그래피티 효과를 주도록 페인팅하는데 포인트를 두어 제작하였다.
- ③ 작품 사진 -



2) 인종주의

(1) 작품 7

- ① 소재 - 홀터 넥 스타일의 티셔츠를 이용하여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 ② 작품 해석 - USA, AAAA..., 등의 상징적 기호를 전면에 배치함은 물론, black person, white person, yellow person 이라는 기호를 적어 넣음으로써 인종주의 요소를 강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특히 이라크전을 상징하는 이라크, 자이툰 부대를 연상시키기 위한 태극기, 이라크전의 배경중 하나인 보수적인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가 그려진 교회 등을 무분별하게 나열함으로써 현대의 인종문제를 더욱 강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또한 배경색 없이 화이트 바탕 위에 이러한 기호들의 무작위적 배치를 통해 낙서화의 느낌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페인팅하였고, 형상을 극대화 시킨 입술 위에 “help me”라는 글귀를 새겨 넣어 절규하는 모습을 표현하여 주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인종에 따른 얼굴을 낙서처럼 그려넣어 원시벽화의 느낌도 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듯 전체적으로 그래피티 효과를 살리는 데 포인트를 두어 페인팅한 작품이다.

③ 작품 사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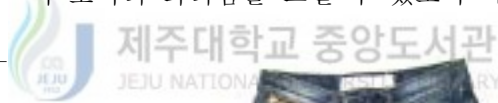


(2) 작품 8

- ① 소개 - 지퍼가 달린 포켓이 있는 진한 색의 블루진 바지를 이용하여 억압된 노동환경과 인종주의 요소를 극대화시키고자 하였다.

- ② 작품 해석 - NEGROES, DAR CONTINENT 의 상징적 기호를 사용하여 인종주의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었고, 왼쪽 바지통에는 아메리카 대륙의 모양을, 오른쪽 바지통에는 아프리카 대륙의 모양을 상징하기 위해 세타칼라로 페인팅하여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흑인들의 이주를 상징하도록 하였다. 페인팅에 있어서 다크 블루에 가까운 진한 바지색과 대비되는 비비드한 옐로우로 그래피티 효과를 살리도록 과감하게 붓칠하는데 포인트를 두었고, 왼쪽 바지통에 화이트 색상의 구타로 께맨듯한 자국을 그려 넣어 이주민들의 상처를 표현하면서도 황금색 구타로 전체적으로 덧칠함으로써 오히려 화려함을 느낄 수 있도록 페인팅하였다.

- ③ 작품 사진 -



(3) 작품 9

- ① 소개 - 레이어드한 비대칭형의 블루빛이 도는 그린 색상의 면 티셔츠를 활용하여 왜곡된 현실인식과 더불어 삶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 ② 작품 해석 - 각자의 소원이 담긴 타일로 구성된 청계천 조경의 소원의 벽, 혹은 서양의 공동 묘지, 혹은 어두운 할렘가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전면에 퍼즐식으로 각 인종을 나타내는 화이트, 옐로우, 블랙의 색상으로 붓칠함으로써 인종주의에 관한 주제를 드러내었고, 전체적으로 티셔츠 고유의 색과 어우러져 우울함을 표현하도록 페인팅하면서도, HARLEM, SLAVE AUCTION 등의 상징적 기호를 언급하여 주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은색의 구타로 최종적으로 덧칠함으로써 우울한 현실 이면의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도 아울러 나타내고자 하였다.

- ③ 작품 사진 -



3) 만화 테마

(1) 작품 10

- ① 소재 - 만화테마를 표현하기 위해 화이트 색상의 V넥크라인의 면 티셔츠를 활용하였다.
- ② 작품 해석 - 만화에서 차용해 온 도롱뇽, 공룡, 왕관 등을 그려 넣고, 바스키아의 자화상과 그의 이름을 중앙에 배치함으로써 바스키아의 만화테마에 대한 주제를 응용하였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었다. 또한 그림을 그린 후 X표시를 위에 함으로써 마치 새로 칠한 벽에 낙서금지란 표시 위에 다시 X표시를 하는 악동의 마음을 표현하였고, 여기에 연구자의 이니셜인 K.E.S를 새겨 넣어 낙서자를 밝히는 모순된 심리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화이트 색상의 티셔츠 앞면을 사각형 모양으로 가득 채움으로써 벽면에 몰래 낙서한 듯한 느낌을 최대한 살려 그래피티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포인트를 두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③ 작품 사진 -



(2) 작품 11

- ① 소재 - V네크라인의 면 티셔츠의 화이트 색상을 이용하여 색채를 두드러지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 ② 작품 해석 - 화이트 바탕에 그린 계열의 색채를 전체적으로 사용하여 통일감을 주도록 붓칠한 반면, 태양을 moon이라고 하여, moon1에서 moon4까지 그려넣었고, 위에서 바라본 듯한 산의 형상을 위해 원형 테두리를 표시함으로써 산의 형상을 재구성하였으며, 도시의 폭발을 희화적으로 표현하는 등 만화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페인팅에 포인트를 둔 작품이다.
- ③ 작품 사진 -



(3) 작품 12

- ① 소재 - 화이트 색상의 V넥라인의 면 티셔츠를 이용하여 그래픽티 효과를 최대한 살리고자 하였다.
- ② 작품 해석 - 공상적이고 몽환적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화면 전체를 구름이 떠다니는 듯하게 구성하였고 COMICS, DISNEY 등의 상징적 기호를 직접 언급하여 만화테마임을 드러냈고, 그래픽티 효과를 위한 페인팅에 포인트를 두었다. 또한 연구자의 이니셜을 삽입하여 낙서자를 표출하였고, 남자와 여자를 표시한 기호, love, yes or no 등을 표기하여 현대인의 사랑 방식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하였다.

- ③ 작품 사진 -



(4) 작품 13

- ① 소재 - 갈옷으로 만든 판타롱 스타일의 바지를 이용하여 인간 내면의 욕망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 ② 작품 해석 - 사실적 표현으로써 형상을 극대화시킨 눈, 다소 과장되게 입꼬리를 올려 극대화시킨 입술, 그리고 오른 쪽 밑단에서 부터 왼쪽 허릿단까지 가로지르며 올라가는 나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형상의 극대화와 강렬한 원색의 붓칠 등 바스키아의 페인팅 기법을 응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눈 주변의 거미줄은 타인의 시선 속에 갇혀있는 현대인을, 입술에서 뺨어 나오는 선들은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현대인의 말을, 나무는 피를 뺨어내는 심장을, 그리고 뺨은 나뭇가지는 현대인 내면의 욕망을 풍자한 것이다. 더욱이 인간내면의 화려한 욕망을 강조하기 위해 비즈, 스팅글 등을 덧붙여 부가시켰고, 허리선과 무릎선의 강조는 현대인들 간의 의사소통의 단절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 ③ 작품 사진 -



4) 금전적 가치

(1) 작품 14

- ① 소재 - 광목 소재의 V넥 면 티셔츠를 이용하여 우울함을 극대화시키고자 하였다.
- ② 작품 해석 - cents, sale, \$, won, money 등 상징적 기호의 언급으로 금전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표현 하였고, 상단 부분에 여인 형상에 눈물이 얼룩진 듯한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금전적 가치와 물질만능주의에 벽찬 힘든 현실을 아이러니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아무렇게나 낙서한 듯한 글귀의 무작위적 배치와 얼룩진 듯한 느낌을 강조하기위해 옐로우 계열의 안료로 전체적으로 페인팅함으로써 우울함을 좀 더 극대화시킬수 있었다.

③ 작품 사진 -



(2) 작품 15

- ① 소재 - 블랙색상의 지퍼가 달린 후드 티셔츠를 사용하여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잠재된 욕망을 최대한 드러내고자 하였다.
- ② 작품 해석 - ONE CENT, DOLLAR, BILL, TAX FREE 등의 상징적 기호를 통해 금전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으며, 위에서부터 아래로 쏟아지는 듯한 붓터치와 화살표로 상징적 기호를 연결하였고, 황금색의 구타로 덧칠하여 일확천금을 꿈꾸는 현대인의 심리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퍼를 통한 면 분할에서 다른 한쪽 면에는 치켜뜨고 있는 눈을 동전을 형상화한 동그라미 안에 그려 넣음으로써 금전적 가치에 혈안이 되어있는 모습과 이를 지켜보고 있는 자들을 이중적으로 표현하였다. 전체적으로 블랙 바탕과 대비되도록 하는 색상을 사용하면서 황금색이 두드러지도록 하여 강렬한 느낌과 쏟아지는 듯한 붓칠로 금전적 가치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 ③ 작품 사진 -



(3) 작품 16

- ① 소재 - 빛바랜 색상의 블루진 바지를 이용하여 그래피티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였다.
- ② 작품 해석 - 전체적으로는 바지 본래의 빛바랜 색상과 세로선으로 연결되는 듯한 황금색과 은색 구타를 이용한 낙서로 황금 만능주의를 시사하고자 드로잉하는데 포인트를 두었다. COIN, CENT, BILL ANDREW, DOLLAR 등의 문구를 직접 적어 넣음으로써 금전적 가치를 나타내었고, 넓은 붓칠 없이 선으로만 구성하여 오히려 바지의 빛바랜 부분이 면이 되어 붓칠의 느낌을 가한 듯한 효과를 얻도록 하였다. 바지 왼쪽 부분은 바짓단에서부터 CENT로 이어지는 것이 계단을 형상화하도록 하여 인간의 신분 상승 욕구를, 바지 오른쪽 부분의 눈, 화살표, 기하학적 도형 등은 자본주의 계층사회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전체적으로는 그래피티 효과를 최대한 살려 전철의 낙서화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 ③ 작품 사진 -



(4) 작품 17

- ① 소재 - 클래식한 스타일의 블루진 바지를 이용하여 강렬한 색채 대비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 ② 작품 해석 - CENT, DOLLAR, ONE, COIN 등을 화이트로 도드라지도록 적어 넣음으로써 금전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드러내 고자 하였다. 또한 동심원은 강렬한 붉은 색의 세타칼라로 반복적으로 넓은 붓칠을 하고 그 위에 황금색의 구타로 섬세한 덧칠을 함으로써 동전을 재구성하여 극대화한 형상으로 나타내어 화려하게 표현하였다. 블루 색상을 이용하여 바지 앞면을 세로로 연결하기 위해 대담하게 붓칠하여 강렬한 색채 대비를 주었다. 이와 같이 본 작품은 강렬한 원색 대비, 감각적이고 표현적인 붓칠, 형상의 극대화를 통해 바스키아의 페인팅 기법을 직접적으로 도입한 작품이다.

- ③ 작품 사진 -



5) 해부학과 죽음

(1) 작품 18

- ① 소재 - 어깨 부분이 끈으로 구성된 그레이 색상의 민소매 티셔츠를 이용하여 허무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 ② 작품 해석 - 죽음의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붉은 색 십자가를 맨 위에 그려 넣어 묘지를 상징하였다. 키보드를 연상시키는 듯한 숫자, 영문, 한글이 적힌 화이트 사각형을 차곡차곡 쌓은 듯한 모습으로 페인팅 하였고, 블랙 구타로 이들 사이의 면을 채워 전체적으로는 교회의 공동묘지 같으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을 살리도록 페인팅하는데 포인트를 두었다. 하단 부분에 MY LIFE라는 단어와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를 새겨 넣음으로써 죽음이라는 주제를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 ③ 작품 사진 -



(2) 작품 19

- ① 소개 - 블랙 색상의 반소매 먼 티셔츠를 이용하여 죽음의 이미지를 반어적으로 경쾌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 ② 작품 해석 - 위에서 아래로 길이를 다르게 하여 넓고 거친 붓터치로 페인팅하여 티셔츠 전면을 채우고, 필이 들어간 화려한 색상을 이용함으로써 블랙 바탕과 대비되는 강렬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각 붓터치의 상단 부분에 ♥ 무늬와 이를 둘러싸는 사각형 테두리, 그리고 그 위에 십자가를 구타로 그려 넣음으로써 각각 심장, 관, 무덤을 상징하도록 하였다. 하단 부분에는 해골을 덧그려 넣고, Heaven, Hell, Death 등의 단어를 그려 넣음으로써 죽음의 이미지를 직접 드러내었다. 즉 본 작품에서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도 반어적으로 전체적인 화려하고 경쾌함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데 포인트를 두어 페인팅 하였다.

- ③ 작품 사진 -



(3) 작품 20

- ① 소재 - 블랙 색상의 터틀넥 티셔츠를 이용하여 바스키아를 추모하고자 하였다.
- ② 작품 해석 - 펄이 포함된 세타칼라로 거칠게 넓은 붓질을 하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색상과 다양한 크기로 핸드프린팅한 뒤 다시 구타로 낙서한 듯 덧칠을 함으로써 블랙 바탕과 대비되는 화려함을 가지면서도 침묵속의 절규가 느껴지도록 페인팅하였다. 또한 바스키아의 생애를 나타내는 'Jean Michel Basquiat 1960.12.2~1988.08.12'를 새겨 넣음으로써 바스키아를 추모하고자 하였고, 십자가를 많이 그려 넣음으로써 그의 무덤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는 흑판에 낙서한 듯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포인트를 두어 페인팅하였다.

- ③ 작품 사진 -



(4) 작품 21

- ① 소재 - 플리츠 스커트로 구성된 블루진 원피스를 이용하여 귀여운 느낌을 살리면서 죽음의 이미지를 드내고자 하였다.
- ② 작품 해석 - 전체적으로 핏이 포함된 레드 계열의 칼라라이트로 거칠고 투박하게 붓칠을 함으로써 선혈(鮮血)의 느낌을 표현하였고, 그 위에 눈, 뼈다귀, 발모양 등을 그려넣음으로써 해부학적 요소를 나타내었으며, Blood, Dead 등의 단어를 적어 넣어 해부학과 죽음이라는 직접적인 주제를 드러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플랫 칼라와 플리츠 스커트로 구성된 원피스 고유의 귀여운 느낌을 살리면서 죽음이라는 주제를 드러낼 수 있도록 페인팅하는데 포인트를 두었다.
- ③ 작품 사진 -



(5) 작품 22

- ① 소재 - 블루진으로 만든 플리츠 스커트를 이용하여 해부학적 요소를 발랄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 ② 작품 해석 - 붓질을 배제하고 구타로 낙서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 페인팅하는데 포인트를 두었다. 눈, 코, 입술 등 해부학적 요소를 다소 과장되고 희화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형상을 극대화하였고, 무질서하고 아무렇게나 낙서한 듯 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조화되도록 하여 경쾌한 블루진 스커트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도록 하였다.
- ③ 작품 사진 -



(6) 작품 23

- ① 소재 - 블루진으로 만든 티어드 스커트를 이용하여 색채의 대비를 극대화시키고자 하였다.
- ② 작품 해석 - 티어드 스커트 자체의 면분할을 가로질러 붉은 색으로 거칠고 투박하게 넓은 붓칠로 페인팅하여 스커트 본래의 색과 뚜렷한 색채 대비를 이루면서 강렬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그 위로 황금색 구타로 낙서하듯이 덧칠함으로써 화려함을 더하였고, 여기에 세포, 해골, 눈 등을 그려 넣음으로써 피를 흘리는 듯한 레드 계열 색상의 붓터치와 더불어 해부학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 ③ 작품 사진 -



(7) 작품 24

- ① 소재 - 맑은 색이며 부분적으로 찢어진 블루진 바지를 이용하여 죽음을 모순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 ② 작품 해석 - 다소 거친듯한 블루계열의 세타칼라를 이용한 붓터치 위에 구타로 덧칠하여 보다 선명하게 표현하였고, 강한 대비를 이루는 레드 색상으로 꽃 중심부를 페인팅하여 꽃의 형상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하였다. 세 개의 꽃 중에서 주머니 부분에 그려진 꽃에는 ♡무늬를, 중간 부분에 그려진 꽃에는 남녀 표시(♂,♀)를, 하단 부분에 그려진 꽃에는 태아를 그려 넣음으로써 남녀간의 사랑과 출산의 신성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고, 각 꽃을 블랙과 황금색 구타로 전체적으로 연결된 듯하게 페인팅 함으로써 삶의 연속성을 드러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죽음이라는 주제를 오히려 삶으로 나타내고자 한 작품이다.

- ③ 작품 사진 -



(8) 작품 25

- ① 소재 - 블루진 바지를 이용하여 핸드프린팅 효과를 최대한 살리고자 하였다.
- ② 작품 해석 - 청바지 앞면에 강렬한 느낌을 주도록 레드 계열의 칼라 라이트로 핸드프린팅을 전체적으로 배치하여 해부학적 요소를 강하게 드러냄과 동시에 새로 칠해 놓은 벽에 누군가 몰래 손자국 또는 발자국을 남겨 놓은 낙서와 같은 효과를 주도록 하는데 포인트를 두어 페인팅하였다. 화이트로 마치 분필을 닦아서 막 그어놓은 듯 붓질을 하고 그 위에 해골, 뼈다귀, 십자가 등의 그림과, Blood, DEAD 등의 기호를 덧그려 넣음으로써 그래피티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해부학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직접 표현하였다
- ③ 작품 사진 -



IV. 결론

바스키아는 비록 28세라는 짧은 인생을 살았으나, 흑인 예술가 중에서 최초로 백인 문화 본바탕의 전면에 등장하여 미국 미술계에 당당히 자신의 자리를 만든 흑인 화가로서 일생동안 기념비적인 많은 작품들을 남겼다. 특히 바스키아의 작품에서 주목되는 점은 현대 회화의 전통 부분들을 창조적으로 수용하고 활성화하여 구사함으로써 예리하고 복합적인 조형방식을 만들어내어 빌딩의 벽면에 낙서하는 작가들의 한계를 넘었다는 것이다. 즉, 그의 작품에는 표현적 붓질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자유로운 붓터치와 그것을 더 극대화시키는 원시적이고 강렬한 색채가 사용되면서도 낙서의 속성인 상징적 또는 직설적으로 과장된 형상의 극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재생산, 재창조적인 조형방법을 통해 자신만의 시각으로 사회적, 정치적 부조리를 예술적으로 통합하여 자전적 경험, 흑인역사와 대중문화를 독특한 서술성으로 표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바스키아의 작품을 고찰하여 ‘자전적 경험, 인종주의, 만화테마, 금전적 가치, 해부학과 죽음’이라는 다섯 가지 주제 및 조형 방법을 유추하였고, 텍스타일 디자인의 일종인 패션 페인팅이 팝아트 패션의 그래픽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중적 문화코드인 진(Jean)과 티셔츠(Tee shirt)에 바스키아의 작품에 나타난 주제를 재구성한 패션 페인팅 작품 제작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디자인 의도는 전체적으로 형상의 극대화, 표현적인 붓질 등으로 그래픽티 효과를 최대화하는데 포인트를 둔 패션 페인팅 작품 제작에 있다.

첫째, 자전적 경험에 관한 주제에서는 바스키아 작품에서 사용된 LIBERTY, TEETH, BLOOD 등과 연구자의 중요한 상징적 기호인 Nailist, Time, Work 등의 반복적으로 삽입을 칼라라이트, 빼베오 페인트를 이용하여 표현적인 붓질을 통하여 대담하고 회화적인 표현을 주로 활용한 작품을 제작하였다.

둘째, 인종주의에 관한 주제에서는 차별과 편견, 정복, 억압 등을 나타내고자 NEGROES, DAR CONTINENT 등과 이라크 진을 상징하는 기호들을 주로 빼베오 페인트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극대화시켜 그래픽티 효과를 최대화한

작품을 제작하였다.

셋째, 만화테마에 관한 주제에서는 대중소비문화의 도상을 주제로 표출하고자 만화에서 차용해 온 도롱뇽, 공룡, 왕관 등의 형상을 재구성하여 화려함과 장식적 효과를 내기 위해 칼라라이트, 빼베오 페인트를 이용하여 페인팅하면서 그래피티적 요소를 주로 활용한 작품을 제작하였다.

넷째, 금전적 가치에 관한 주제에서는 금전적 가치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자, 직접적인 단어인 cents, sale, \$, won, money 등을 작품 속에 삽입하였고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대비를 이루는 강렬한 원색 또는 황금색 빼베오 페인트를 사용하여 붓터치한 효과를 살린 표현적인 붓칠로 그래피티 효과를 준 작품을 제작하였다.

다섯 째, 해부학과 죽음에 관한 주제에서는 핸드 프린팅, 눈, 뼈다귀 등의 해부학적 요소와 십자가, Heaven, Hell, Death 등 죽음에 관한 상징을 반복적인 삽입과 Red 계열의 칼라라이트 페인트를 주로 사용하여 주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도 화려하고 경쾌한 이미지를 표현한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상과 같이 패션 페인팅 작품을 통해 바스키아의 그래피티를 현대 패션에 재해석하는 시도를 해보았으며, 차후 패션페인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바스키아의 작품을 응용하고 현대적 의미로 재구성하려는 적극적인 시도가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

참고 문헌

- 니콜라스 마르조예프, 『비디스케이프』, 이윤희, 이필 역. 시각과 언어, 1999
- Decker Andrew, 『Price of Fame』, Art news, January, 1989
- Decker Andrew, 『Price of Fame』, Art news, January, 1989
- How Joonchi, 윤동순 역 ‘New painting ;사회현상으로서의 뉴페인팅(New painting as social phenomena)’, 『공간』, 1983. 6
- H. H. 애너슨, 『현대 미술의 역사』, 1991
- Jonathan Fineberg, 『Art since 1940』, Prentice, 1994
- Klaus Honnef, 『Contemporary Art』, Taschen, 1998.
- Klaus Kertess, 『Brushes with Beatitude』, Whitney/Abrams, N.Y, 1994
- Levin Kim, 『Andy Warhol & Jean-Michel Basquiat』, Exhibition Catalogue, Sonje Museum, 1991
- 루시 스미드, 김춘일 역, 『현대미술의 흐름: 1945년 이후』, 미진사, 1992
- Richard Marshall, 『Jean-Michel Basquiat』, Whitney/Abrams, N.Y, 1993
- Richard Mardhall, 『Jean-Michel Basquiat』, Whitney/Abrams N.Y. 1994
- Storr Robert, 『Basquiat Drawing』, Robert Miller Gallery, N.Y, 1990
- 토니 고드프리, 『신표현주의』, 배경숙 역, 열화당, 1995
- 김광우, 『위홀의 친구들』, 미술+문화, 1997
- 박규형, ‘위홀과 바스키아의 세계’, 『공간』, 1991. 11
- 엄혁, ‘대안의 문화 대안의 공간’, 『월간미술』, 1989. 5
- 윤난지, ‘80년대 이후 세계미술의 다원주의’, 『월간미술』, 1996. 2
- 윤현덕, 『Jean Michel Basquiat의 繪畫世界 研究』, 경기대학교 석사논문, 1999
- 이태호, ‘80년대 미술의 확산과 반작용’, 『월간미술』, 1989. 12
- 이태호, ‘장내미술과 장외미술’, 『월간미술』, 1989. 4.
- 정미희, 『독일 표현주의 미술』, 일지사, 1990
- 정병국, 『장 미셸 바스키아의 예술』, 영남대학교 석사논문, 1996
- 홍대일, ‘장 미셸 바스카아의 들연한 죽음’, 『월간미술』, 1989. 4.최재경, 『장 미셸 바스키아의 작품세계 연구』, 성신여자 대학교 석사 논문, 1993

장 미셸 바스키아(1960.12. 2 - 1988.08.12) 연보

- 1960년 12월 22일 미국 뉴욕 브룩클린 태생.
- 1968년 교통사고를 당해 비장을 들어냄.
입원 중 어머니가 선물한 '그레이 해부학'에 큰 영향 받음. 부모 이혼.
- 1974년 푸에르토리코로 이사.
- 1978년 17세에 화가가 되리라 결심하고 가출- 독립적인 생활 시작.
영재들을 위한 City-as-School에서 낙서화가 Aldiaz와의 만남.
SAMO라는 고유명을 이용해 작업.
- 1979년 동성 연인으로 알려진 화가 키스 헤링과 케니 샤프를 만남.
- 1980년 첫 그룹전시회 'TIMES SQUARE SHOW'에서 호평을 받으며 인정받기 시작.
- 1981년 '뉴욕/뉴 웨이브 전시회'에서 20여명의 미술가에 포함됨.
5월 유럽을 처음으로 여행. 이태리에서 개인전 개최.
- 1982년 노제이(Nosei)화랑에서 연 최초의 개인전에서 극찬을 받음.
6월 독일 Kassel에서 열린 국제전시 '다큐멘타 7展'에 최연소로 초청받음.
11월 fun 갤러리에서의 개인전 호평.
- 1983년 뉴욕 휘트니 미술관 '1983년 비엔날레 전시회'에 최연소 미술가로 참가.
8월 앤디 워홀 소유의 빌딩으로 이주.
10월 바스키아, 앤디 워홀, 프란체스코 클레멘테 공동작업.
- 1984년 뉴욕 현대 미술관에 작품 전시.
9월 앤디 워홀, 프란체스코 클레멘테와 공동작 전시회 개최.
- 1985년 2월 10일 "80년대의 제임스 딘", "흑인으로서 최초로 성공한 천재 아티스트", "검은 피카소"로서 뉴욕 타임즈의 표지를 장식.
9월 토니 샤프라치 화랑에서 앤디 워홀과의 공동작 전시.
- 1986년 8월 처음으로 아프리카 방문.
- 1987년 1월 파리에서 개인전.
2월 앤디 워홀 사망.
- 1988년 8월 12일 뉴욕에서 코카인 중독으로 그레이트 존스 스트리트 자택에서 27세의 나이로 사망.

Abstract

The art reflects the epochal, social situations and becomes a new modern language by reorganizing and revising for the development. Thus, there are new trials to create a new form outside the art area and to replace the direct experience with the indirect title of culture. The most representing example is to expand the art using popular culture. Fashion is the costumes that can be the means of expressing lives in an era seriously and frankly, reflecting the art trend in the fashion can be good examples.

Especially, pop art is a trend of representationalism emerged in the middle and later part of 1950s, contributing to the popularization of art by accepting visual image of popular culture such as mass media and advertisements to an art area and demolishing the boundary between fine arts and popular ar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r and consumer-oriented culture affected to the 1960s' fashion, resulting in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and futuristic mode in the 1960s' fashion and affected even to the modern fashion. The skill mainly used in the pop art fashion is the engraving skill of silk screen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pop art by changing a special and shocking image to ordinary and insensible one through the serial cloning of special incidents. It plays the role of textile design in the modern fashion. Furthermore, fashion paintings which produce works by painting directly on the various materials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art in fashion as pop art and every art trend can be embodied in fashion.

In addition, subjective thinking of artists is always reflected consciously and unconsciously in the art, as the desire to express oneself is the most basic and substantial one. Therefore, graffiti is the origin of art as it is originated from the most basic instinct. Until now graffiti is the target of dispute within and outside the art sector, but due to the influence of free,

black culture and Neo-Expressionism in 1980s, graffiti was admitted as the art. Jean Michel Basquiat is the most famous graffiti artists in that era. He was regarded as the genius and star in the American art sector, leaving a lot of important and creative works during the short period of 9 year. In his works, pursuit of self identification, purpose of expression and epochal, social phenomenon are well expressed. American culture, structural characteristics, complexity and special art marketability are well reflected in his success in the American art world.

Basquiat was black in the isolated and dark shadows in the U.S.. His race was innate in his work and was the important theme. But, Basquiat was the son of a wealthy accountant rather than a rascal in Harlem. He wanted to be a boy in Harlem intentionally, used free graffiti in his picture as if he ridiculed the existing concepts of pictures and worked with an expressive language. In his works, characteristics of black were revealed clearly and the main theme of them was consisted with the racial symbols.

Childish and simple features, intentionally wrong spellings and sentences and symbol of death such as skeletons, intestines, bones and teeth are usually expressed in his works. The sentences in his works mainly criticize the consumerism of modern societies and situations of human beings. He expressed sarcastic contents with the unique modeling method, strong colors, by using instinctual, impulsive and direct touch of expression as if he scribbled and maximized the shape.

This study is on works which juxtaposed art trend and fashion by expressing Jean Michel Basquiat's works in fashion painting arts. It is to express Basquiat's works in fashion by providing applications of fashion painting after analogizing the themes and modeling methods of works.

감 사 의 글

논문을 처음 시작할 때의 막연함이 이제는 하나의 작은 뿌듯함으로 다가옵니다.

훌륭하신 교수님 아래에서 논문을 마치게 된 것은 큰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 연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시고 작은 부분 하나하나 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신 장애란 교수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논문이 나오기까지 지도를 아끼지 않고 논문을 심사해 주신 박현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옆에서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박성진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저를 아껴주신 여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를 믿고 후원해 주시는 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논문이 나오기까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동생과 직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항상 주위에서 힘이 되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 작은 결실을 전합니다.